



The-K의 걸음이 미래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The-K 가족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50년의 걸음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100년의 거름으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함께합니다

Environment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으로 친환경 경영 실현

- 창립 50주년 기념 더케이숲(산불피해복구숲, 교실숲) 조성
- 일회용품 절감 친환경 캠페인 전개
- 친환경 건물 인증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설비 구축

Social Responsibility 책임경영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회원만족 서비스 및 사회공헌 활동 실천

- 임직원 행동양식 The-K Way 내재화
- 회원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회원중심경영 강화
-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장비 지원 사회공헌사업 추진

Governance 윤리경영

투명성 원칙을 기반으로 건강한 기업가치 창출

- 경영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ESG경영 자가점검을 통한 윤리문화 실천
- 탈석탄 금융 선언, 2050 탄소중립 기후금융 지지



대상
공주여자중학교 최은숙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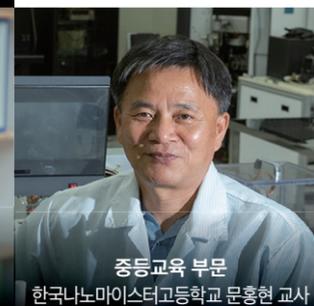


중등교육 부문
인천세원고등학교 정재만 교사

중등교육 부문
이리공업고등학교 김미숙 교사



유아교육 부문
영천중앙유치원 박명희 수석교사



중등교육 부문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문홍현 교사



특수교육 부문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우병호 교사



초등교육 부문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전영모 교감



초등교육 부문
운정초등학교 김문호 교사



중등교육 부문
여주여자중학교 채용기 교사

대학교육 부문
서울예술대학교 권세실 교수

The-K

MONTHLY MAGAZINE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특별 인터뷰



2022 06
vol.58

- 📅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끌고 항일독립정신을 교육한 포암 이백하 선생
- ➕ **배움 더하기** 고민 상담소 혼자가 편한 사람, 고슴도치 딜레마 증후군
- ✕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금강산 자락에 불어오는 산뜻한 초여름 바람, 강원도 고성
- 📖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한국교직원공제회 스승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 현장 스케치

- 발행일 2022년 6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04 여는 글

필연이 되는 인연

☎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 06 The-K 예술가**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말아야 할 텐데
세상이 환합니다
- 08 역사 속 숨은 영웅**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끌고 항일독립정신을 교육한
포암 이백하 선생
- 12 우리 어렸을 적에**
전쟁에 대비해야 했던 학교의 민방공 훈련



⊕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 38 고민 상담소**
혼자가 편한 사람, 고슴도치 딜레마 증후군
- 40 인생 이모작**
지구 반대편, '페루' 제자들에게 한글을 전합니다.
_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박순덕 회원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특별 인터뷰

- | | |
|---|---|
| 14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공적 소개 | 28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교육 부문
_ 여주여자중학교 채용기 교사 |
| 16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_ 공주여자중학교 최은숙 교사 | 30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교육 부문
_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문홍현 교사 |
| 20 대한민국 스승상 유아교육 부문
_ 영천중앙유치원 박명희 수석교사 | 32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교육 부문
_ 인천세원고등학교 정재만 교사 |
| 22 대한민국 스승상 특수교육 부문
_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우병호 교사 | 34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교육 부문
_ 이리공업고등학교 김미숙 교사 |
| 24 대한민국 스승상 초등교육 부문
_ 운정초등학교 김문호 교사 | 36 대한민국 스승상 대학교육 부문
_ 서울예술대학교 권세실 교수 |
| 26 대한민국 스승상 초등교육 부문
_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전영모 교감 | |



✕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 44 방방곡곡 숨은 명소**
금강산 자락에 불어오는 산뜻한 초여름 바람, 강원도 고성
- 50 똑똑! 트렌드 경제**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박, 늘어나는 빅스텝 금리 인상
- 52 마음심**
내 불안과 우울이 기후 변화 때문?
- 54 The-K 예방의학**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로 더위가 더 두려운 사람들
- 56 건강한 집밥**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땅속의 사과'
6월 햇감자로 만드는 이색 음식
- 60 DIY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의 대안, 알루미늄 캔의 딜레마
높은 재활용률이 무색한 많은 전기 사용·탄소 발생
버려지는 캔을 활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

☑ 언제나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 64 The-K Focus**
한국교직원공제회 스승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 현장 스케치
존경하는 선생님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 68 The-K 매거진 신고 달려가는 커피트럭**
부릉부릉~ 향긋한 커피와 감사의 마음을 한가득 신고 달려왔어요
_ 두 번째 현장 이야기: 경기 문산수역중·고등학교 편
- 72 The-K 크리에이터**
글과 영상으로 교육 가족과 소통하는 The-K 크리에이터 2기,
설레는 첫 시작을 소개합니다
- 74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 78 회원 의견**
- 82 온라인에서 만나는 「The-K 매거진」 이벤트**
- 83 6월호 초성 퀴즈 / 즉석 당첨 이벤트**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이정우, 김경희, 황수현, 오수민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정라희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필연이 되는 인연



삶을 지지해주는 이들과의 인연은 관심과 작은 호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라는 연대감으로 인연의 끈을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이고 기쁜 일에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인연은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6월호에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한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학생의 성장을 일궈내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으로 의미 있는 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참스승 10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역사 속 숨은 영웅」에서는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다잡고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만세운동에 뛰어든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포암 이백하 선생의 숭고한 열정과 애국심을 배워봅니다.
 「인생 이모작」에서는 페루와 동티모르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코로나19로 귀국한 후 화상수업으로 학업을 이으며
 지구 반대편 제자들을 만나는 박순덕 회원의 특별한 인연과 봉사활동 소식을 소개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강원도 고성 여행,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6월 햇감자로 만들어 보는 이색 요리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제조 과정에서 높은 환경 비용이 발생하는 알루미늄 캔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 소품으로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눠봅니다.

공제회 소식에서는 팬데믹으로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야 했던 교육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음악공연으로 모처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2022년 스승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 현장과
 화창한 봄날 경기 문산수익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두 번째 「The-K 매거진」 커피트럭 행사 현장도 지면에 담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최근 새롭게 출범한 2기 The-K 크리에이터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 힘을 주는 인연과 마음을 나누는 기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말아야 할 텐데 세상이 환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두 아이 | 이미혜 회원 (前 월계고등학교)

수채화, 35 x 50cm, 2018

작가 노트 : 모의고사 보던 날 점심시간, 교실 밖 무언가를 바라보는 우리 반 아이들 모습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선생님께 하는 부탁

1. 아침밥을 꼭 먹고 오실 것
2. 지각을 하더라도
잠은 꼭 주무실 것
3.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루쯤은 꼭 쉬실 것
4. 기초적인 운동을 해서
몸매 관리를 하실 것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실 것)
5. 항상 웃으실 것
6.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말 것

중학생 제자가 적어 내려간 열두 가지 부탁을 읽습니다.
이해되는 모순, 열다섯 소년이 사랑스럽지만
선생님과 똑같이 키가 167센티미터라고 하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실례입니다
칠갑산 깊은 골에 사는 농부의 아들
요한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첫차를 타고 우체국 앞에 내려
뾰드득뾰드득 새벽길을 걸어옵니다

교무실 담임 선생의 책상 위에
지난밤 정성껏 적은 교환 일기장을 올려놓고 갑니다

어린 제자의 선물 같은 부탁을 들여다봅니다
가장 바쁠 때 탁! 손 털고 하루쯤 꼭 쉬어 보겠습니다
아침밥 따듯이 지어 먹어야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몸매 관리도 해야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말아야 할 텐데 세상이 환합니다.

WRITER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받은 **최은숙 시인**은 2006년부터 교사 독서연구회 '간서치'를 운영해왔으며 지역신문에 연재한 글을 묶어 단행본 「선생님의 책꽂이」(2013)를 출간했다. 이후 8년간 월간 「소년」에 연재한 고전연구 자료를 엮어 「열세 살 내 인생의 첫 고전 노자」(2014), 「열네 살 내 인생의 첫 고전 장자」(2015)를 각각 발간하고 학교 시 창작 수업에서 학생들의 시를 엮은 시집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2016)를 비롯해 학부모도 함께 참여한 「반짝일 거야」(2019), 「한창 예뻐 나이」(2021) 등 10여 편의 시집을 펴냈다. 현재 공주여자중학교에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며 지역사회기관과 연대한 '우리 동네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2020), 「반갑습니다! 청춘, 공주」(2021) 등의 산문집도 출간했다.

※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역사 속 숨은 영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남긴 교육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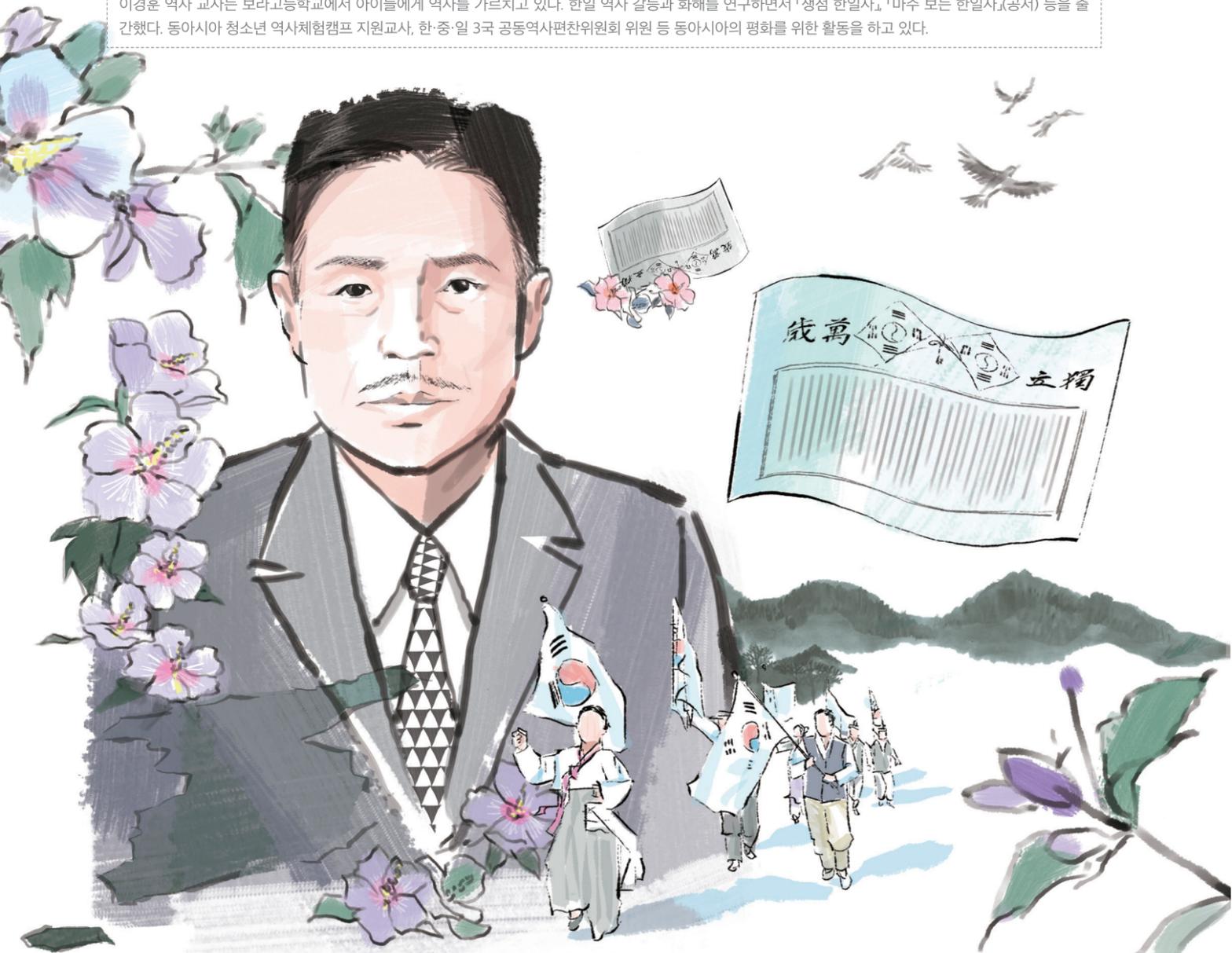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끌고 항일독립정신을 교육한 포암 이백하 선생

1919년 3월 마지막 날, 아우내 장터 인근의 너른 평야가 보이는 매봉산 정상. 이곳에서 유관순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다음 날의 거사를 준비했다. 포암 이백하 선생은 교육자로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다음날 벌어진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이다. 독립선언서를 알기 쉬운 한글로 초안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이백하 선생은 해방 이후에는 국어와 한문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전하는 교사이자 독립투사였다.

글 이경훈 보라고등학교 역사 교사

이경훈 역사 교사는 보라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일 역사 갈등과 화해를 연구하면서 「쟁점 한일사」, 「마주 보는 한일사」(공저) 등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지원교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의 요지, 천안삼거리와 아우내 장터

아우내 장터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사무소 주위에서 매일 1일과 6일에 열리는 전통시장이다. 지금은 ‘병천순대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병천순대’는 1960년대 병천면에 햄 공장이 들어서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아우내 장터가 전국에 알려진 계기는 유관순 열사가 주도하여 일어난 호서지방 최대의 항일 독립 만세운동인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천안관광지도의 천안삼거리 [출처: 천안시청 홈페이지]

천안은 중부지방 교통의 요지로 조선 중기 이후 시장이 많이 개설된 곳이다. 특히 ‘천안삼거리’로 유명한데 북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대전·대구·부산, 서쪽으로는 공주·광주·목포 방향으로 가는 길이 나뉘는 삼남대로의 분기점이다. 예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장(3·8일), 풍세장(4·9일), 병천장(1·6일), 이동장(4·9일), 성환장(1·6일) 등이 개설되었다. 병천장, 이동장, 성환장은 지금까지도 ‘5일 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병천(竝川)은 북구정천과 산방천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시내(川)’를 ‘아우른다(竝)’는 데서 유래하여 예부터 ‘아우내’라고 불렸다. 아우내는 청주·진천·조치원·천안 등과 연결되는 요지에 위치하여 18세기 중반부터 시장이 개설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민족의 역사를 바꾼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지금부터 103년 전인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천안의 아우내 장터. 이곳에서 마을 주민부터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까지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은 홍일선, 김교선, 이백하 선생을 중심으로 한 수신·성남면 계열과 조인원, 유중권, 유관순을 중심으로 한 동면 계열이 결합하여 커다란 규모로 확산된 호서지방 최대의 독립 만세운동이다. 수신·성남면 계열의 만세운동은 홍일선의 발의와 김교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5일 장이 서는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를 부를 것을 합의하고 같은 지역의 한동규, 이순구, 이백하 선생과 함께 준비하였다. 동면 계열의 독립운동은 유관순이 서울 이화학당에 재학 중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내려와 같은 동네 어른이자 감리교 동면 속회장이었던 조인원,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숙부 유중무 등에 보이고 서울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들도 아우내장이 열리는 4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유관순은 서울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나 3월 10일 조선총독부가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리자 서울의 독립운동 소식을 고향에 전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귀향하였다.

이들은 아우내 장터에 오는 사람들에게 동참하기를 권유하려고 천안·수신면·진천 방면 등의 길목에 사람을 배치하였다. 밤에는 예배당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었다. 3월 31일 밤에는 아우내 장터를 중심으로 천안 길목과 수신면 산마루, 진천 고갯마루에서 다음날 거사를 알리는 봉화를 올리기도 하였다.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기념 동상 ‘그날의 함성’ [출처: 오마이뉴스]

4월 1일, 홍일선과 김교선, 이백하 선생 일행은 사전에 준비한 대로 장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였고, 장터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되돌아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오후 1시가 되자 태극기를 든 조인원이 '대한 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장터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독립 만세운동의 선봉에 선 교육자, 이백하 선생

포암(浦巖) 이백하(李栢夏) 선생은 1899년 4월 17일 천안군 성남면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정규 교육은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조부 이상수와 서당을 운영하던 부친을 따라 한문과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0여 세에 한시를 지었을 만큼 문장력을 타고나 시도 수십 편을 창작했고, 역사학에도 관심이 많아 동양사와 한국사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팔만대장경』을 해독할 정도로 불교학에도 정통했다고 한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오송보통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성남면 유림 대표 자격으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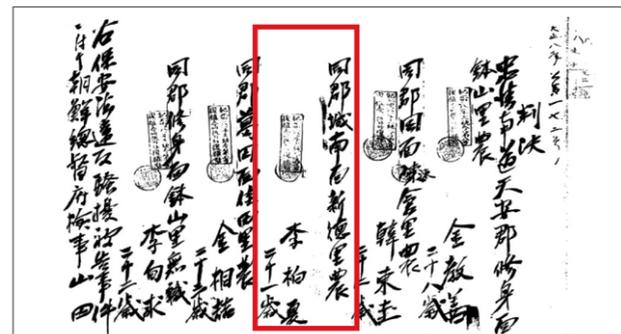


포암 이백하 선생
[출처: 『열린충남』 94권, 2021]

이백하 선생은 독립선언서를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한글로 초안을 잡아,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가 서울에서 은밀하게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너무 길고 한자투성으로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백하 선생의 외아들인 이은창 씨가 1977년 1월 국가 보훈처에 제출한 '항일독립투사 이백하 옹의 공적서'에 나온 기록이지만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이 시작되자 장터는 삽시간에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열을 지어 큰

깃발을 선두로 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장터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헌병 주재소가 있었다. 헌병들은 만세 소리에 놀라 장터로 출동하였고 사람들에게 기총을 난사하였다. 이때 유관순의 아버지 유증권을 비롯하여 19명이 사망하였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신을 헌병 주재소로 옮기고 항의하였다. 김교선은 주재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었고, 한동규는 헌병보조원이 강탈해 갔던 태극기를 도로 빼앗았다. 이백하 선생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함께 죽여라. 구금자를 석방하라”라며 주재소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주재소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만세운동이 격화되자 헌병대는 발포와 함께 무력 진압을 시도하였다. 생명의 위협과 체포를 피해 해산한 사람들은 천안·병천 간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신주를 무너뜨렸다. 또 갈전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고 부근에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였다.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이후에도 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공주지법과 경성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백하 선생을 비롯한 주도자들은 “조선 민족으로 정의와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를 범죄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저항하였다. 이때 조인원, 유관순 등은 3년, 김교선, 이백하 선생 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정 8년(1919년) 제172호 이백하 선생 판결문. 우측 3번째 (충청남도 천안군)등군 성남면 신덕리 농(업) 이백하 21세"라고 기록되어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독립운동사자료집5 삼일운동 재판기록]

이백하 선생은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났다. 해방 이후에는 충청북도의 충주중학교, 청주여자중학교, 청주고등학교 등에서 국어와 한문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청주고등학교 교가를 작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6·25전쟁 때도 피난을 가지 않고

홀로 남아 학교를 지켰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항일 독립 만세운동 체험담을 들려주는 등 교단에서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나갔다. 정부는 일평생 항일 만세운동과 초중등 교육에 헌신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려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고, 1994년 대전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하였다.



포암 이백하 선생이 청주고등학교 재직시절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국어 수업을 하는 모습
[출처: 중도일보]

수많은 유관순, 이백하가 만든 독립운동



3·1절 기념 봉화제. 매년 2월 마지막 날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기념하며 열리고 있다.
[출처: 굿모닝충청]

“이놈들아!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 나라 독립 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이놈들아! 나도 죽여라!”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들고 사람들을 이끌다 순국한 김구응과 함께 순국한 어머니 최정철의 묘비석에 있는 글이다.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과 달리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주도자들이 많았고 참가자도 많았다. 아우내 장터에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유관순 열사와 이백하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빼앗긴 국가와 억압받는 민족에 대한 해방 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아우내 장터가 있는 천안시 동남구의 세성산은 1894년 공주 우금치 전투의 전초전이었던 세성산 전투가 있던 곳이다. 이 지역은 특히 동학 세력이 컸던 곳이다. 또 영호남과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새로운 문물을 접하기 쉬웠고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도 했다. 유관순을 비롯한 동면 계열이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들던 곳은 개신교 매봉교회였다. 만세운동 당일 깃발을 들고 군중을 이끌던 김구응은 성공회 병천교회에서 운영하던 진명학교의 교사였다. 진명학교에는 당시 1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는데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웠다. 이백하, 김교신 등 20대의 젊은이들이 수신·성남면 계열의 주도로 활동한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문물과 근대 의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것이다.



대전현충원 이백하 선생의 묘소
[출처: 『열린충남』 94권, 2021]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에서 유관순 열사 한 사람이 크게 부각된 것은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 정치인으로 활약한 조병옥의 영향이 크다. 조병옥은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의 주도자 중 하나였던 조인원의 아들이다. 그는 해방 이후 정부의 정통성과 민족의 구심점 찾기에 고심하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전개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떠올렸다. 게다가 자신보다 어린 나이의 여성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시위 중 부모를 모두 잃었으며, 자신마저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에게 주목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많은 유관순과 이백하를 기억하고 찾아야 할 것이다. 올레길과 둘레길, 성지순례 길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역사 순례길’을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지역에 아직 찾지 못한 또 다른 유관순과 이백하를 발굴하고 기념하는 것은 역사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㉞

전쟁에 대비해야 했던 학교의 민방공 훈련

우리는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다. 그러나 해마다 신록이 우거진 6월이 되면 노년 세대는 6·25전쟁의 쓰라린 상처를 떠올린다. 전쟁을 대비해야 했던 그 시절 학교의 민방공 훈련은 당시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것이었다. 전방에서 국군이 나라를 지켜 주고 있지만, 적의 공습 때 후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975년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 경보가 울리면 긴급히 대피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모든 국민이 철저히 민방공 방위 태세를 갖추었다. 학교에서는 책상 아래 숨거나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비롯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상 탈출 훈련도 진행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수업하지 않아 즐거워하는 어린 학생들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㉔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 **민방공 단체 대피 훈련** (1974)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교사의 인솔 아래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있다.



○ **비상 탈출구 탈출 훈련** (1974)
고층에 남아 있던 학생들이 천으로 만든 탈출구로 탈출하고 있다.



○ **비상 사다리 탈출 훈련** (1973)
학생들이 2층 창문에서 비상 사다리를 타고 탈출하고 있다.



○ **민방공 구호 훈련** (1974)
훈련 중에 다치거나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비한 구호 훈련을 하고 있다.



○ **민방공 훈련 안내 포스터** (1972)
훈련의 단계인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해제경보 등 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야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교육현장을 아름답게 빛낸 스승들 참된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제 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스승의 뜻은 ‘스스로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움의 기쁨을 일깨우고 함께 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든 스승의 노력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The-K 매거진』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학교 현장을 빛내고 모든 스승의 귀감이 되어 주신 참 스승,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10분을 소개합니다.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고 학생들과 마음을 열어 소통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공동체 역할을 확장해온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들을 만나보고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K) 정리 편집실

★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하기 위한 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해 매년 유아·특수·초등·중등·대학교육 부문에서 총 10명을 선발합니다.



완전한 교사는 완전한 학생, 오늘도 글을 통해 사람을 배웁니다

대상 최은숙 (공주여자중학교 교사)

선생님의 가르침을 넘어 방향을 안내하는 교사가 되고자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간서치’를 2006년부터 운영하며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2016년 이후부터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활용한 학생 시 창작 수업의 결과물을 엮어 학생 시집을 발간하고 있다. 지역의 옛 모습을 발굴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학생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꾸려나가며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 문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자연 친화적 통합 교육활동 선도

특수 우병호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 교사)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부족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특별시간을 할애하는 등 기본 교육을 위해 애쓰면서, 특수교사로서 통합 교육활동을 통해 비장애학생과 장애 학생이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인성교육에도 성심을 다했다. 2021년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에서 ‘상야RCY’를 조직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환경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봉사 정신을 함양시켰다.



한발 앞선 연수와 끝없는 연구 유아 중심 놀이 수업의 따뜻한 안내자

유아 박명희 (영천중앙유치원 수석교사)

34년간 공립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유아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수업 혁신을 위해 힘썼으며, ‘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위해 연극 놀이, 하브루타 질문놀이와 비구조화된 다양한 놀이거리를 창의적으로 개발, 유아 주도적 놀이 수업에 앞장섰다. 수업 교사 지원, 심층 수업 컨설팅, 학부모 놀이 교육 놀이아카데미 강사 등 현장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잠재능력 깨우는 주제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 안착에 앞장

초등 김문호 (운정초등학교 교사)

기후 위기, 환경 재난에 대응하고 미래 환경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력, 도전 정신을 고취하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왔다. 기업가 정신을 교육에 접목한 비즈쿨 활동을 전개하고, 온책읽기 및 모의 창업·경제 체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해 교실 수업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 안팎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제동행, 소규모 학교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에도 헌신하고 있다.



창의 과학문화 확산 노력 소외된 지역 아이들 위한 발명교육

초등 전영모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교사)

투철한 교육철학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난 21년간 매주 캠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발명, SW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및 전국 과학발명 창의영재 지도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과학발명 영재 창의교육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포츠 결합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 및 다문화 교육 활성화

중등 채용기 (여주여자중학교 교사)

체육 교사로서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단, 체육사랑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6년간 스포츠를 결합한 입체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제동행의 교육 활동은 물론 다문화 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왔으며 및 동아리 담당자로서 각종 대회와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여러 상을 받으며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경제 교육 과정 새로운 형식의 수업 모델 개발

중등 정재만 (인천세원고등학교 교사)

NIE 활용 글쓰기와 교실수업실천사례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생활 속 체험과 연계한 경제교육 수업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14년째 마을공동체 교육 연계 지역 탐구와 생생·상생 경제 텃밭을 운영했다. 또, 학생들의 꿈·피·끼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PRIDE-UP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나들길’, 행복동행봉사단의 나눔실천 활동으로 ‘2017 가슴 따뜻한 가을 음악회’,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 ‘세원 PRIDE 학술제’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장 경영 살린 실용적 교육 실천 신기술 분야 고교 직업교육 안착

중등 문홍현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New & First’ 정신으로 나노마이스터고의 초석을 완성한 장본인이다. 2017년 대한민국 1호 나노 융합 분야 마이스터 부장교사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나노 융합 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설계, 실습실을 구축했으며, 전문교과 교사 직무 연수 및 산학겸임 교수 운영으로 나노분야 교수학습 역량 강화와 교육기관과의 교육 협력 및 심화학습 운영 등 나노 융합 교육과정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구비문학수업 창의적 교수법 개발 우수사례 일선 학교 보급 기여

중등 김미숙 (이리공업고등학교 교사)

국어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미개척 분야인 구비문학 수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감성으로 느끼고 몸(소리)으로 표현하는 시 교육’을 확립해왔다. 실기 중심의 시 낭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했으며 교내 혁신업무 주무자로서 뮤지컬 예술 활동의 창체 동아리 활동을 안착시키는 등 학교 문화 개선에도 힘썼다. 독서 캠프와 문학기행을 연계하거나, 자율 독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독서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예술 관련 영어교재와 커리큘럼 개발 글로벌 인재 키우는 현장 플랫폼 구현

대학 권세실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예술대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과 접목한 영어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대 극복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미국 LA·뉴욕과 이탈리아 스포레토·텔레프레네스 등의 대학과 원격 소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 교육행정가로서도 두각을 보였다. 필리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 ‘희망의 불꽃’을 기획했으며 어려운 환경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글로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함께 읽고 교감하는 스승과 제자 오늘도 글을 통해 사람을 배웁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
공주여자중학교 **최은숙** 교사

자라나는 것에는 저마다의 파종 시기가 있다. 글에도 파종 시기가 있다면, 최은숙 교사는 중학생일 때가 적기일 거라고 믿는다. 이때 마음에 씨앗을 뿌려 두면, 사람은 평생 글을 가꾸고 거두며 살 거라고 믿는 것이다. 글 발을 돌보는 농사꾼,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 최은숙 교사 덕분에 학생들은 시처럼 사랑하고 소설처럼 성장하며 동화처럼 꿈꾼다.

글 이성미 / 사진 문동일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학생들의 시집을 발간하고 교사들과의 독서모임을 주도하면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글쓰기 활동을 이끈 최은숙 교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평교사와 함께 받은 선물이자 응원

“동료 선생님이 쓰시고 여러분이 동의해주신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 추천서를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16년 동안 이어온 교사 독서 모임, 학생들과 글쓰기, 시 쓰기를 한 것,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살아온 일 등 그간의 행적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셨더군요. 추천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의 의미를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대상(大賞)이라는 소식을 듣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상이 과분하면 상이 아니라고요? 제 옷이 아닌 것을 입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평교사에게 주는 선물이자 응원인 것 같습니다. 기쁘게 받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학생과 시어(詩語)로 대화하고, 글을 엮어 책을 만들고, 학생들이 나고 자란 땅을 탐구하며 이웃과 소통하게 하고, 충청남도 내 교사들과 독서 모임을 해온 모든 일을 최은숙 교사는 ‘평범’이라는 그릇에 담는다. 개인의 특성상, 또 국어 교사로서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일상처럼 해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기억, 니은과 같은 평범한 자음과 모음이 얽혀 아름다운 시가 되듯, 그가 평범하게 벌인 일들은 모이고 쌓이고 뭉쳐져 학생들의 삶에 크나큰 보석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글로써 다시 배우고, 학생들을 읽어내는 시간

최은숙 교사의 첫 직업은 기자였다.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글을 썼다. 그러다 신문사가 문을 닫자 직장 상사가 그를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데려가 거기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전공과목이 아니라서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영어 공부에 할애했다. 수업과 관련된 낭만적인 영어 문장을 찾아 노래와 율동을 만들고 퀴즈도 하고 나름 즐겁게 잘 지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와 돈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편했다. 결국 ‘학교로 가자’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런데 임용고사에 합격해 교사가 되어보니, 애초에 교사란 직업은 세상에 없었다. ‘완전한 교사는 완전한 학생이다’라는 말처럼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학생만이 존재했다.



“교사가 되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나는 학생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과목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은 ‘학생’이었습니다. 글쓰기는 국어 교사가 가장 편안하게 학생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글을 쓰면서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고, 타인과 대화해요. 아이는 어른보다 용기 있고 솔직하게 대화할 줄 알죠. 학생들의 글을 읽으면 글을 쓴 사람이 보여요. 가정방문을 다녀온 것처럼 금방 친해져요. 국어 수업 시간에 쓰는 글은 학생과 연결되는 통로이자 가장 훌륭한 교과서예요.”

1993년 교직 생활 시작 후 최은숙 교사는 늘 ‘시가 있는 교실’을 꿈꾸었다. 그에게 모든 아이는 부족함 없는 시인이자 작가였고 ‘시인이 있는 교실은 얼마나 따뜻한가’를 표어로 삼았다. 교환 일기장을 만들어 학생, 그리고 학생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고, 시 창작도 함께했다. 1990년 『한길문학』에 시 「하남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최은숙 교사는 자신의 마음에 뿌리내린 시를 학생들 마음으로 부지런히 옮겨 심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이기 어려워하던 학생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공감과 격려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환해진 마음이 모여 학생 시집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 『반짝일거야』 『한창 예쁠 나이』 등과 문집 『우리가 닳을 내리는 곳은』 『우리들은 동창생』 『일반적인 아이들』 등이 나왔다. 제자 중 훌륭한 소설가가 배출되고 문예 창작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글 발은 매해 풍년이었다.



최은숙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책
『반갑습니다! 청춘, 공주』를 들고 찍은 기념 사진



함께 읽고, 느끼고, 성장하는 교사들

최은숙 교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고전을 추천한다. 고전 가운데 그의 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책은 노자의 『도덕경』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크고 작은 문제와 부딪치고 갈등하며 살아간다. 그는 노자를 읽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부할’ 문제로 전환하는 시선의 확장을 경험했다. 고전 읽기를 도와주신 이현주 목사님의 권유로 월간 『소년』에 노자와 장자를 풀어 써서 8년 정도 연재하기도 했다. 귀한 경험은 책으로 묶여 동료 교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교재가 되었다.

2006년, 청양중학교 부임 후에는 독서 활동의 주체를 동료 교사로 확장했다. “전처럼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끓어오르면 좋겠다”라는 동료 교사에게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대답한 것이 청양교사독서모임 ‘간서치’의 시작이 되었다. ‘간서치’란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스스로 ‘책만 보는 바보(看書癡)’라고 칭한 데에서 따왔다. 간서치 회원들은 매달 한 권의 책을 정해 읽고 만나 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작가를 초청해 그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1년에 두 번 방학을 이용해 독서 여행을 한다. 학부모이기도 한 지역민들에게 교사의 성장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회원들은 지역 신문에도 독후감을 연재했다. 2013년에는 연재한 글을 엮어 100편의 독서 에세이 『선생님의 책꽂이』를

출간했다. 난 자리 없이 회원 수가 20여 명으로 늘면서, ‘청양교사독서모임’은 2015년부터 ‘충남교사독서연구회’로 바뀌었다. 오늘도 최은숙 교사를 비롯한 간서치 회원들은 교육·철학·문학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고 배우며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선생도 자라고 마을은 깊어 갑니다

최은숙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관찰’하고 ‘출발’하는 곳이다.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생은 가장 자기다운 길을 향해 신발 끈을 묶는 곳. 그래서 최은숙 교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학교를 감싼 울타리이자 또 다른 출발점인 고향을 학생들이 알게 하는 일이다.

현재 최은숙 교사가 근무하는 공주여자중학교의 학생들은 공주를 직접 발로 뛰며 배우는 ‘우리 동네 아카이브’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장의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듣는다. 연구 결과는 책으로 엮어져 관내 학교, 도서관, 작은 서점, 공방 등에 배포된다. 2020년부터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반갑습니다! 청춘, 공주』가 최은숙 교사와 학생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최은숙 교사와 학생, 학부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시 「알고 보니」에도 잘 드러나 있다.

올봄에도 아이들이 쑥 뜰으러 나올 거라고
동네 어른들은 독길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았습니
다
쑥 뜰는 동안 자동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은 것은
다들 뒷길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나온 게 좋아서
장난치고 도망가고 야단법석
그래도 쑥이 모자라지 않았던 것은
방앗간 사장님이 뜰어 놓았던 쑥을
한 소쿠리 보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학교 앞 솔로몬문방구랑 스마트폰식, 독립상회까지
떡을 돌리고도 전교생이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들이 쌀을 듬뿍듬뿍 퍼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선생도 자라고
마을은 깊어 갑니다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받고 최은숙 교사는 “혼자 이뤄낸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럴 수밖에. 그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 학생, 부모, 동료 교사, 지역 주민이 항상 함께하며 어울렸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남겨둔 글이 마음 곁에 맴돌았다. 최은숙 교사의 올해 목표는 인근 제민천(川)에 학생들의 시를 전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학생과 시와 마을이 한 곳에 담겨 반짝일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시심(詩心)이 일렁인다. 세상에 하나의 자음과 모음으로만 된 시는 없다. 최은숙 교사의 삶도 시와 같다. 평범한 교사, 학생, 마을 주민이 그에게로 와 시가 된다. 부대끼며 서로를 완성하고, 깊어 간다. ㊦





깜깜한 밤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등대 불빛처럼

영천중앙유치원 박명희 수석교사



영천중앙유치원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공기'가 있다. 서로의 마음을 감싸 주는 '온기'와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슬기', 유아들을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끈기'가 그것이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다. 꾸준한 연수와 끝없는 연구로 유아 중심 놀이 수업의 '안내자' 역할을 해 온 박명희 교사다. 그의 머릿속은 오늘도 유아들과 재미있게 '놀 거리'로 가득하다. 강산은 세 번도 넘게 변했지만, 그의 '초심'은 여태 그대로다.

글 박현채 / 사진 이용기

유아 중심 놀이 교육의 따뜻한 '안내자'

깜깜한 밤바다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 한 줄기 등대 불빛이 돼 주는 사람들이 있다. 박명희 교사가 그런 존재다. 2020년도에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시점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있었지만,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연수의 부족과 갑작스러운 교육과정 변화에 혼란을 겪는 교사가 꽤 많았다. 그는 기꺼이 혼란스러운 이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한발 앞선 연수와 오래 지속해 온 연구로 유아 중심의 놀이 교육을 체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등을 보며 걷던 후배들이

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스스로 놀이하며 배운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놀이 교육과정이지요. 기존의 교사가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유아 자신이 놀이를 계획하고 제안하고 주도하니 유아 중심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다른 방식이라 제대로 안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위해 그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연수를 시작했다. 교사들에게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유아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놀이 방법을 수업 시연으로 지도했다. 학부모도 직접 만났다. 영천은 물론 청송, 경주, 청도 등 경북 전역의 학부모를 마주하며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유아 중심 놀이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 '안내자'로 나서면서 누구보다 자신이 성장했다.

“지난해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책 쓰는 선생님’으로 선정되어 「애들아! 유치원에서 뭐 하니?」라는 제목의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서를 썼어요. 놀이의 시작과 흐름을 따라가며 유아들의 놀이 성장과 배움을 기록한 책이에요. 유치원에서 무슨 놀이를 할까 궁금해하는 부모님이나 예비 교사들, 놀이의 가치를 고민하는 동료 교사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의 '초심'은 놀이로 빛나는 유아의 눈망울에 있다

그는 유아교육의 본질이 '놀이를 통한 행복'이라 믿는다. 교사로서 각종 교육연수를 이수하며 자기 계발에 쉼 없이 몰두해 온 것은 바로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하브루타 연극 놀이'는 오랜 연수와 연구 끝에 그가 직접 설계한 놀이 수업이다.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는 '하브루타'에 그림책 내용을 연극으로 옮기는 놀이를 접목하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엄청나게 발휘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데 '놀이'처럼 좋은 게 없어요. 특히 유아 중심 놀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을 배울 수 있죠. 양보와 협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다툼도 종종 일어나지만 그 덕분에 화해하는 법도 스스로 깨달아 갑니다. 교사도 놀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해요. 그 안에서 함께 놀다 보면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광산에서 광물 캐듯 만날 수 있어요.”

그는 놀이 나눔 공동체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주무자가 되어 동료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자신의 풍부한 교육 경험들을 기꺼이 나누고 동료들끼리



각자의 수업 내용을 공유하며 유아교육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왔다. 유치원 바깥에서 자원봉사도 한다. 칠곡의 작은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그림책을 활용한 하브루타 연극 놀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아들과 마음을 따뜻이 나눠 왔다.

“2009년 경산 하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발령받았을 때의 일이에요. 학부모를 초청해 저의 놀이 수업을 공개했는데 학부모께서 그 수업에 크게 공감해 주셨어요. 그 결과 매년 한 학급씩 증설했고, 2013년 마침내 특수학급을 포함한 단설유치원(경산꽃재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유아 모집에 애를 먹던 때라 그 보람이 매우 컸어요.” 유치원 교사의 초창기를 그는 요즘도 가끔 떠올린다. 놀이감과 교구가 부족해 40명이 넘는 유아들과 논둑길을 함께 뛰어다니고, 길가의 풀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연극 놀이를 하던 시절. 환경은 비록 열악했지만 놀이가 있어 눈부신 날들이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놀이로 빛나는 유아의 눈망울에 가슴이 뛰다. 내년이면 정년퇴임이지만 그의 '초심'은 아직 그 자리에 있다. ⊙



더 많은 기회와 기다림이 장애 아이들을 꿈꾸게 합니다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우병호 교사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은 전교생이 9명인 미니 학교다. 이 중 3명이 장애아동으로, 비율로 따지면 30%가 넘는다. 하지만 장애·비장애 학생의 경계가 거의 없고, 통합교육도 수월하게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통합 체육수업 운영 학교로 지정돼 매주 수요일 오후엔 전교생이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금 느리지만 함께 가기 위해 기다려 주는 학교, 그 뒤에는 특수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장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우병호 교사가 있다.

글 최선희 / 사진 이용기

통합 체육수업, 몸으로 부딪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상야분교장에 들어서니 작은 학교 특유의 정겨움이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한쪽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우병호 교사는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돌봄교실에 참여한다”라며, “놀이 활동, 미술 활동 등을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부터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통합 체육수업학교로 지정돼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이 모여 운동을 합니다. 몸으로 부딪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아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정서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장애 학생의 소외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 체육수업 학교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스포츠 교구 및 장애인 체육활동 용품이 마련되었다. 덕분에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장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종목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경기 종목을 직접 정하고 장애·비장애 학생, 저학년·고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운영 방식이나 규칙도 조정해 나간다.

인성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바른 인성과 배려심은, 장애·비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릴 때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가정법원 보호소년을 상담·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인천가정법원 위탁보호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인 돌봄을 지원한다. 처음엔 무반응이던 아이들이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교내 학생봉사동아리 ‘상야RCY’도 조직했다. 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 활동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체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한다. 편지쓰기, 텃밭 가꾸기, 학교 주변 환경정화 등 활동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장애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기회

19년 차 특수교사인 그는 줄곧 부산에서만 근무하다 4년 전 이곳에 왔다. 대학에서 국어교육과 특수교육을 복수 전공한 그는 국어 교사 대신 특수교사의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취업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행복해지는 자신을 보며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모든 걸 제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무게중심을 아이에게 옮기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일 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 달라져 있어요. 더디고 느리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기회”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리면, 비장애 학생들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다양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봉사조직을 만들어 장애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이유다.

아이들을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통합이 사회 전체로 번져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진심으로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다. ㉞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그리는 도화지! 기업가 정신으로 밑그림 돕는다

운정초등학교 김문호 교사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가(企業家) 정신이란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가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다. 김문호 교사가 학교 안에 세우는 기업가(起業者) 정신은 그 뜻이 조금 다르다. 여기서 기업가는 업을 일으키는(起) 사람, 즉 세상에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노력의 주체는 바로 학생이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기업가 정신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의미를 찾고 목표를 명확히 세울 줄 알게 한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선아

잠재 능력을 깨우는 주제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운정초등학교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학년, 반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 음악 놀이, 놀이 체육, 탐험, 생태, 역사 등의 주제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운정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최초로 주제 중심 학습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학급의 중심 주제가 그대로 반 이름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한 김문호 교사다.

“교육은 인간 내면의 잠재 능력을 깨워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제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은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니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예요.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교사는 자신 있는 분야를 가르치며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주제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여 초등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자리 잡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운정초등학교의 주제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은 그대로 따르되 주 2시간, 연 68차시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 대부분은 미래 환경,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김문호 교사는 업사이클링,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태 등을 주제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다. 「사회」의 경제와 환경, 「도덕」의 공감과 나눔, 「실과」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수학」의 비와 비율 등 교과 내용을 재구성한 주제도 많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배움’은 ‘쓰임’으로 이어진다.

기업가 정신으로 세상에 올바른 쓰임을 만든다

김문호 교사가 맡은 학급은 ‘6학년 미래 반’이다.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르기’가 이 학급의 주제이다. 김문호 교사가 생각하는 기업가는 스스로 하나의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라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 도전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목적을 둔다는 것. 그렇다면 김문호 교사가 기업가 정신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기업가 정신 교육의 형태는 정삼각형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폭넓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이와는 반대인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이뤄내려면 어릴 때부터 도전하고 경험하고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효과로 미루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뤄내기에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정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미니컴퍼니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홍보하며, 수익금으로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해 낸다. 예를 들어, ‘볼펜 하나에서 다양한 색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학생은 제작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자신만의 완성품을 만든다. 이것을 플리마켓에서 판매하며 소비자의 반응도 살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협동심을 기른다.



기업가 정신 교육이 세상에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학교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안착하기까지 김문호 교사도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다. 그 결과 미니컴퍼니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 도출 보드게임 제작, 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성과도 얻었다. 김문호 교사의 교육 철학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김문호 교사는 “동료 교사들 덕에 상을 받았다”라며 공을 돌린다. 교감 발령을 앞둔 그는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전국의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할 생각이다. 아울러 연구하는 교사들에게 길을 터 줄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게 된 것은 교사 10년 차에 ‘나는 교사로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 이 자리까지 왔죠. 같은 생각을 지닌 교사들과 지원 프로그램도 만났고요. 여러분도 교육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과감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정말 큰 세상이 열립니다.” ‘빈자의 미학. 여기에선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 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에 나오는 구절이다. 지식의 쓰임을, 세상과의 나눔을, 환경의 비움을 생각하며 김문호 교사는 오늘도 힘차게 6학년 미래 반 교실 문을 연다. ㉞



학교를 놀이터로 만드는 꿈다리 쌤의 특별한 수업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전영모 교감



전영모 교감은 아이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꿈다리 쌤'으로 통한다. '꿈에 다리를 놓아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창의력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그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즐겁게 배우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글 최선희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창의력 교육의 대명사가 된 '고·창·날·달'

“교사가 되어 처음 발령받은 지역이 포천이었어요. 학년당 한 학급밖에 없는 작은 시골 학교였죠. 문화적으로나 교육 환경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키우고 창의력에 날개를 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재미있어야겠다고요.

흥미가 생기면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생각을 서로 나누다 보면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그래서 ‘고·창·날·달’ 수업을 만들게 되었어요.”

‘고·창·날·달’은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력에 날개를 달자’라는 것을 줄여 쓴 말이다. 수업 방식은 매우 융합적이다. 선생님이 제시한 대주제 안에서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소주제를 만들어 나름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에서 주제를 끌어낸다. 양돈·양계 농가가 많은 포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바이러스의 역습’ 같은 내용을 연구하는 식이다.

경진대회를 휩쓴 ‘꿈의 학교’ 아이들

그는 이 고창날달을 적용해 주말마다 여러 분야의 창의 학교와 ‘무한도전 과학발명 창의 박사’라는 ‘꿈의 학교’를 운영해 왔다. 보통 수업과 다른 점이라면 교사가 나서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학생들에게 토의·토론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창의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른 팀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 의견을 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서 생각의 확산과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며, “고창날달 수업은 의사소통, 토론,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공감 능력, 협업, 코딩, 융합, 상상력 등 다양한 영역을 자극한다”라고 한다. 이 혁신적인 교육 방법의 결과는 놀라웠다. 2007년 발명품 경진대회에서는 그가 지도한 학생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서는 4년 연속 대회를 석권했다. 작은 시골 학교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중국과 태국 교육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학교에 다녀가기도 했다.

창의력 씨앗을 뿌리는 ‘창의 버스’ 운전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한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그저 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아이들과 이 수업을 함께하며 깨달은 것은 아이들의 창의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와 시골이 다르지 않아요”

올 3월, 그는 ‘교감’ 승진과 함께 정든 포천을 떠나 의정부 장암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20여 년 간 신북초등학교, 이곡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등을 두루 거치며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구상 중이다.

“교사가 된 후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 너무 좋아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출근길이 행복하다”는 그는 “오랫동안 꿈다리 쌤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퇴직한 뒤에는 ‘창의 버스’를 한 대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버스를 개조해 그 안에 VR·AR 같은 최신 기능을 탑재하고 각종 창의 교구와 코딩 교구를 구비해 방방곡곡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 버스 안에서 고창날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창의력과 꿈의 씨앗을 더 많이, 더 넓게 뿌리려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이가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 자신이 원하는 길로 훨훨 날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하는 희망&용기 쌤

여주여자중학교 채용기 교사



채용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희망&용기 쌤'으로 소개하곤 한다. 특유의 긍정성으로 여러 일에 도전해 온 날들을 자신의 이름을 섞어 표현한 것이다. 그는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입체적인 동아리 활동들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무지갯빛 희망을, 평범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꾸준히 선사해 왔다. 학생들의 활동을 지역사회와도 연계하여 교사와 학생과 이웃이 모두 더불어 따뜻하게 성장 중이다.

글 박현채 / 사진 이용기

약점보다 강점에 주목하는 성장 일대기

'결핍'도 때론 힘이 된다. 채용기 교사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 그때의 아쉬움이 훗날 교사가 된 그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돼 줬다. 소외된 학생들을 눈 밝게 알아보고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도 입국 학생들을 도맡아 보살피며, 그 아이들의 눈부신 성장 이야기를 수없이 만들어

왔다. 그 과정을 통해 그도 성장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일임을 그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약점을 아쉬워하기보다 강점을 발견해 성장시키자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도 입국 학생이 있다면 한국어를 빨리 익히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잘하는 것을 동아리로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하게 해 주는 거예요. 언어는 친구들과 어울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리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정으로 강화된 강점은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그 자신감이 우수한 성적이나 뛰어난 재능으로 이어지죠.”

경험을 선사하다, 추억을 선물하다

그는 학생들이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 볼 수 있기를,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각종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과 함께 전국 곳곳으로 체험학습을 다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도자기 축제, 평생학습 축제, 자전거 대행진 등 여주시의 행사에 수시로 참여한다. 지역 바깥으로도 자주 나간다. 전국 풋살대회며 춘천 마라톤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하고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 야구를 관람하기도 한다. 여러 체험학습 가운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225명의 여주여자중학교 학생들과 3회에 걸쳐 직접 관람했던 일은 25년 교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찬란한 추억이 되었다. 그때 그 순간들을 기록해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영상공모전과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인증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평창동계올림픽 수기 공모전에서 교사·학생 동반 우수상을 받았다. 연이은 수상으로 추억이 더욱 빛을 발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으며 입장권을 확보하고 사전 답사를 수차례 해 가며 동선을 점검해야 했어요. 하지만 평생에 한 번 뿐인 추억을 아이들에게 선사한다고 생각하니 즐거웠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88서울올림픽이 열렸는데 TV로만 관람하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이 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과정이 바로 축제였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실한 교육, 유쾌한 소통

채용기 교사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교내 동아리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다. 체육 교사로서 탁구반, 풋살반, 피구반 등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동아리 담당 교사로서 댄스동아리, 영상 제작반, 독도지킴이 등 여러 동아리를 이끌며 학생들 스스로 적성이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전국 스포츠창의아이디어공모전에서 3년 연속(2017~2019) 입상했고, 각종 영상공모전에서 2021년 한 해에만 21차례 상을 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다.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던 2020년 초부터 '여중의 전설'이란 이름의 학교생활 유튜브를 개설해 든실한 교육의 공간이자 유쾌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2022년 5월 현재 550개가 넘는 동영상에 올라와 있다. 지금 이야기해 볼 것들과 오래 기억해 나갈 것들이 차곡차곡 아름답게 쌓여 간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여주교육청의 스포츠클럽지원단, 경기도교육청의 체육사랑 서포터즈 등에서 활동하며 학생들의 가슴에 '지역 사랑'을 심어 주려 노력했어요. 여주시청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여주여자중학교 댄스동아리 '더 모스트'는 지역과 함께하는 동아리로 유명해요. 저는 다만 '관'을 깔아주고 '힘'을 북돋울 뿐,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 갑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를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찾아주기 위해 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벌인다. 소외된 학생들을 보살피고 평범한 학생들을 북돋우면서, 날마다 소풍처럼 하루를 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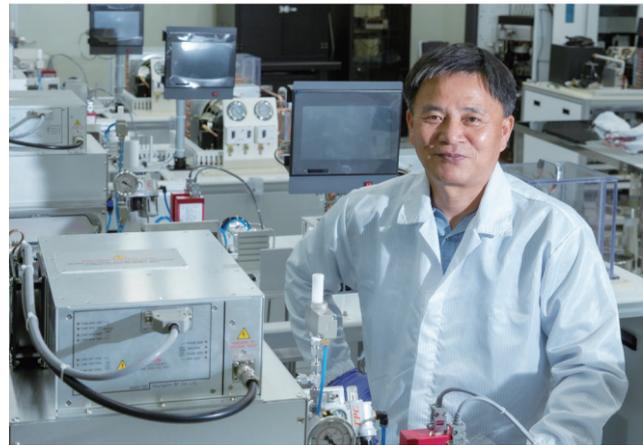


전문인력 양성으로 90% 이상 취업! 소도시 작은 학교에서 일군 기적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문흥현 교사

교단에 선 이래 해마다 맞는 졸업식이지만, 문흥현 교사에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국내 첫 나노마이스터고의 개교 준비를 맡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쉽지가 않던 7년. 그 학교의 1기 졸업생이기도 했지만, 신설 학교임에도 90%가 넘는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대기록을 만든 아이들에 대한 대견함과 고마움이 컸다.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자리이기도 했다.

글 최선희 / 사진 김선아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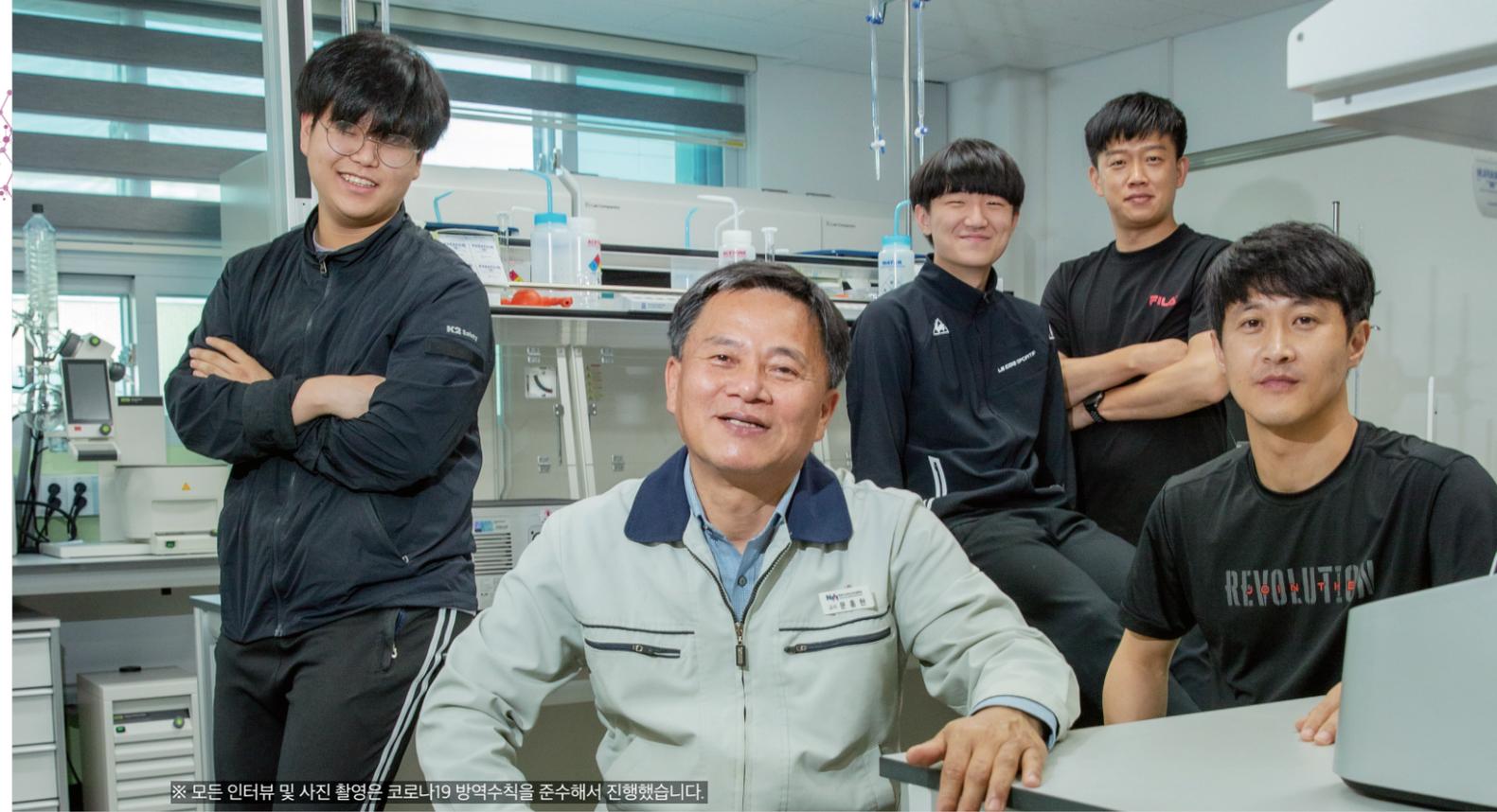
나노 융합기술 관련 직업계 고교의 첫 탄생

“코로나 시국이라 전체 학생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졸업식을 해주지 못한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선배도 없고, 시설도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느라 아이들이 고생이 많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반도체 관련 회사에 취업해 뿌듯합니다.”

학생들 이야기를 시작하자 문흥현 교사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졌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들을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인사하러 와서 놓고 간 것”이라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교단에 선 지 28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제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여전히 보람, 그 이상이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부장 교사였던 그가 이곳에 온 것은 2016년 3월이었다. 그 무렵 경남 밀양에 나노융합기술국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고, 당시 밀양전자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전환을 승인받은 상태였다. 이후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문을 열었고, 첫 졸업생을 배출한 올해 취업률이 무려 90%가 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전문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주말도, 방학도 없이 전국 각지를 돌다 보니 2017년에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어느새 21만km를 넘겼더라고요. 힘들기는 했지만, 나노기술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이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 두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다는 것이요.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전공을 살려 전문 기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걸 한번 바꾸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경험과 체험 중심의 직업교육 모델을 만든다

교사가 되기 전,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창원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전기공학을 전공, 이후 철강회사에 입사해 6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아들이 교사가 되기를 바란 부모님의 오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1994년 임용고시를 거쳐 교직에 입문했다.

첫 부임지는 경남 고성농공고등학교(현 경남항공고등학교)였다. 외지에서 소외돼 고성까지 오게 된 학생들과, 현지 토박이 학생들의 갈등으로 학교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아이들이 기술을 익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특히 제조업 현장 경험을 살려 실제 기업과 교육 현장의 괴리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이론보다는 직접 만지고 경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전제품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멸종한 가전제품을 분해하는 날도 많았다.

그런 노력 끝에 학교생활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조금씩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익혀 일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의 감동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나노마이스터고에서도 그 경험을 살렸다. 반도체 제조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고교 수준에서는 국내 최고의 실습실을 구축하는 등 신기술 분야 고교 직업교육 모델을 안착시켰다. 덕분에 쇠락해가고 있던 지방 소도시 작은 학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나노기술 명문 고등학교’로 우뚝 섰다. 내년이면 정년을 맞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연구 열정은 초임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문흥현 교사. 직업계 고교 교육은 일반고와 달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재미있게 실습하고, 나노반도체 기술 인력으로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 발전의 도약을 꿈꾼다. ㉔





상생을 실천하는 체험 교육 ‘열정 쌤’과 함께 배우는 생활 속 경제

인천세원고등학교 정재만 교사



“정재만 선생님이지? 우리 엄마는 ‘열정 쌤’이라고 불러요.” 인천세원고등학교 학생이 전하는 정재만 교사의 평소 모습이다. 교단에 선 지 30여 년. 관록으로 수업해도 충분할 만큼 경력을 쌓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열정이 가득하다. 밑줄 긋고 외우는 지루한 경제가 아닌, 생활 속 경험으로 진짜 경제를 익히게 한 교육실험은 어떤 모습일까. 생생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을 둘러싼 사회 현상을 깨닫게 하는 그의 수업이 궁금하다.

글 정라희 / 사진 김선아

책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경제

따스한 햇볕 아래 파릇파릇한 채소가 텃밭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인천세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자리한 텃밭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생생상생 경제 체험 텃밭’이다. ‘생생상생’은 ‘생생한 체험으로 상생을 실천하라’라는 의미. 학생들은 이곳에서 손수 키운 수확물을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들과도 나눈다. 밑줄 긋고 외우는 경제 지식이 아닌

생활을 통해 생산·소비·분배·나눔이라는 경제 현상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실험은 어제오늘 시작한 일이 아니다. 정재만 교사는 강화고등학교에 재직했던 2008년부터 인천세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금까지, 마을 교육공동체와 손잡고 학교 텃밭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생활 속 경제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지역의 자연 자원과 문화재, 상품 등 주변의

이야기를 경제 수업에 접목해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특색 있는 교내 대회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최했다.

“어느 대학에 가도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불과 3퍼센트 내외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력이예요. 수능 문제가 어렵다고 경제를 멀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을 하고 싶었던 그가 내린 결론은 ‘생활 속 살아있는 경제 수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직접 다양한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 더불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학생들과 쌍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교육

새로운 형식의 수업 모델을 적용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을까? 처음에는 학생들의 침묵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정재만 교사. 하지만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열의를 보이는 선생님의 정성에 반응했다. 학생 중심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환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대상과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등을 휩쓸기도 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은 물론, 실제 진학 성과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가끔 초청 강연에 나가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고기 ‘코이’ 이야기예요. 코이는 작은 수족관에서 5cm 내외로 자라지만 큰 강물에서는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주어진 교육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교육 환경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저 역시 ‘해 보기나 했어?’ 생각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 배우고 가르치며 나누기를 놓치지 않았던 그에게 전해진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은 관리자 진급을 앞둔 그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다. 그러나 그는 관리자가 되더라도 ‘행복한 학교’의 기분을 잊지 않으려 한다.

“학생이 수업 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교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잊어도 교사의 잔상은 남습니다.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자주 묻는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 같은 마음가짐은 앞으로든 마찬가지다. 수업 현장에서 한걸음 벗어나더라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은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㉞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시(詩), 교육의 강에 흐르다

이리공업고등학교 김미숙 교사



낭독은 ‘몸’으로 읽는 행위다. 눈으로 활자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입으로 목소리를 내고 귀로 그 소리를 듣는 신체 감각이다. 김미숙 교사는 시 낭송과 구비문학 구연 등 소리를 도구로 한 국어 수업으로 아이들의 감수성과 자신감을 꾸준히 일깨워 왔다. 스스로 배우는 수업으로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고 여러 독서 모임을 이끌며 책을 통한 배움에도 앞장섰다. 예술이 꽃피는 배움의 길에 그가 서 있다.

글 박현채 / 사진 이용기

학생들의 마음을 시(詩) 낭송으로 듣는다

그날을 떠올리면 김미숙 교사는 아직도 가슴이 뒹다. 지난해 시 낭송 반 모집 포스터를 처음 붙일 때만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아주 미미했다.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는다는 걸 매우 쑥스러운 일로 여긴 것이다. 그랬던 아이들이 한 해가 저물

무렵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 낭송 발표 무대에 섰다. 소리로 발화되는 시(詩)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이는지 그 공간의 모두가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눈부신 경험을 하게 해 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요. 그날 가장 많은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박수를 받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줄곧 엎드려 자던 아이였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시를 낭송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던 아이가 시 낭송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는 경험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지는 걸 톡톡히 경험한 셈이다. 시 낭송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끄는 이유는 또 있다. 시 자체의 아름다움이 정서를 순화시키는 데다 소리 내어 읽고 외우는 행위가 몸의 감각을 일깨워 감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는 ‘소리’를 접목한 국어 수업의 장점을 깨닫고 시 낭송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을 계획했다. 그 스스로 먼저 배워 시 낭송가 인증서를 획득했고 지금은 그 분야 전문가로 당당히 활동 중이다. 2020년에는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선발돼 시 낭송 연구에 집중했다. 1년간의 그 연구가 현재의 수업에 더 풍부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구비 문학의 한 장르인 설화를 구연 방식으로 구현해 보는 것도 ‘소리’를 도구로 하는 수업 중 하나예요. 설화를 가르친 후 지역의 전설을 창작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주게 하는 식이죠. 책을 읽은 다음 전기수(傳奇叟)가 되어 그 내용을 들려주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개발한 수업들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려고 노력해요. 더불어 성장해야 진정한 행복해지더라고요.”

살아있는 배움, 그 속에서 함께하는 성장과 희망

그는 이른바 ‘늦깎이’ 교사다.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으로 젊은 날을 보내고, 2001년 서른여덟의 나이로 교직에 들어섰다. 대안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대안학교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공교육 안에서 대안 교육을 실천해볼 희망을 품고 있었다. 첫 학교에서부터 학생자치문화 활성화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힘을 쏟은 것은 그 때문이다. 떡을 나눠 먹는 ‘열림식’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모든 의사 결정은 학급 회의 열어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했다. 인터넷 카페에 교단 일기를 올리며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갔다.



“2010년 교사 연수로 일본 ‘배움의 공동체’ 탐방을 가면서 교사로서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수업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곳 학생들의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가르침 대신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그때 꿈꾸게 됐어요.”

이후 ‘살아있는’ 수업에 매진했다. 가령 ‘보고서’에 관한 단원을 배우면 각자 설문지를 작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직접 보고서를 쓰게 했다. ‘사제동행’이라도 하고 오면 인상 깊었던 순간을 글로 쓰되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법을 활용해 작성하라는 숙제를 내 주기도 했다. 모둠별 수업 일기 쓰기, 나의 자서전 쓰기, 부모님 인터뷰해 전기문 작성하기, 학교 기자 되어 뉴스 보도하기……. 살아있는 수업을 차례로 해 나가자 아이들의 수업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교사도 크게 성장합니다.”

독서 교육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2009년 책 읽기 교육을 시작한 그는 2014년 옥구중학교에서 ‘책으로 만드는 세상’이란 동아리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엔 그 동아리를 ‘학생 맞춤형’으로 전환해 7개의 북 클럽(독서모임)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다. 책 속에서 길을 찾으며 따로 또 같이 발전해 왔다.

“청소년기는 한 사람을 성인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길목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그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 ㊤



한국의 예술가가 세계의 예술가로! 글로벌 인재 키우는 영어교육 전문가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창작기초학부 권세실 교수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문화예술인에게 영어는 필수가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면 해외 문화예술인과 협업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글로벌 현장에서 문화예술인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세실 교수는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예술 전공자들에게 특화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덕분에 서울예대 학생들은 외국어는 물론 해외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며,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다.

글 정라희 / 사진 김선아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세계라는 무대로, 예술 인재를 위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

예술대학에서 18년 동안 학생들과 동고동락해 온 덕분일까. 권세실 교수의 첫인상은 마치 예술 전공 교수 느낌이다. 실제로 그의 학부 전공은 순수미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행을 모색하던 중 국내 언론사에 합격해 기자로 일하며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후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을 깨닫고 대학원에 진학해 영어교육을 전공하며 자신만의 역량을 구축했다. 예술을 잘 알면서도 영어

교육에 전문가인 사람. 18년 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그런 교수를 찾았고 누구보다 적임자였던 그가 교수로 임용됐다. 과거 서울예술대학교의 영어 강의는 여타 대학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는 교육은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영어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이를 위해 권세실 교수는 예술계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실제 전공에도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예술대학교 학생들은 자기 전공에 집중하는 경향이 큼니다. 그래서 예술계열 교수님들과 협업해서 예술과 영어를 접목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설한 과목이 「예술영어」, 「미디어예술영어」, 「공연 예술영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 전공을 영어로 경험하고 자신의 전공을 영어로 배우는 기회를 얻는다. 일정 수준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글로벌비즈니스영어」 강의로 해외 인턴십, 공연·전시, 취업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 예술가와 협업하는 바탕이 되었다.

국경 없는 예술이 가능한 글로벌 현장 플랫폼을 만든다

권세실 교수는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예술가 초청, 학생 해외 연수, 해외 봉사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수가 아닌 더 많은 학생이 국제 교류 경험을 쌓을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예술대학교가 2013년 시작한 특성화 사업인 ‘글로벌 걸쳐 허브’가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과 LA 등 핵심 지역에 자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국내외 예술가들이 실시간 교류하는 거점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창작 환경은 국제 교류가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빛을 발했다. 2021년 12월에는 가상 무대에서 국경을 허무는 공동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권세실 교수는 서울예술대학교의 모든 국제화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한국의 예술이 더 발전하려면 국내 예술가들이 글로벌 무대로 자신 있게 달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해 온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기울인



영어로 외국 음식의 요리법을 쓰고 따라 해보는 수업 모습



노력은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으로 돌아왔다. 예술의 내실을 채워주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해외 진출 기회까지 함께 고민하는 그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은 학생들이다. 영어를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영어로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꿈의 무대를 넓혀 세계 각국으로 뻗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자신의 전공이 따로 있음에도 그를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들과 요즘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 그는 믿는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고 예술가는 언제 빛을 발할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더 많은 아이가 전 세계에 한국과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전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긴다. ㉠



혼자가 편한 사람, 고슴도치 딜레마 증후군

상처를 입더라도 다가갈 것인가, 두려움에 혼자 외로워할 것인가?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 최근 1인 가족의 출현은 인간관계 맺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과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갈수록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싫어서 혼자되기를 선택하는 새로운 고슴도치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 강일수 두디스 코칭 대표

● 갈등, 극복할 수 없어 피한다?!

공동체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한다. 추구하는 목적이나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얻는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숨 쉬며 생활하고 있는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떤 이들은 갈등의 당사자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지만, 어떤 이들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를 더 큰 상처를 피하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소통을 거부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갈등의 이슈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더 꼭꼭 숨기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남에게도 유사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 당연한 법칙과 다투지 말라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맹상군은 한때 식객 3천명을 거느렸지만, 그가 권세를 잃자 모든 식객이 떠나갔다. 그러다 그가 다시 권세를 잡자 식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맹상군이 풍환에게 말했다.

“내가 저들을 정성스럽게 대했건만 내가 힘을 잃자 저들은 본체만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선생만이 나를 도와 왕을 설득하여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은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나는 저들이 오면 얼굴마다 침을 뱉어 줄 것입니다.”



풍환이 말에서 내려 맹상군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이를 들은 맹상군이 답례한 다음 물었다.

“선생께서는 왜 저에게 절을 하십니까? 혹시 저들을 대표하여 저에게 사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께서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서 감히 지적하고자 절을 올린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군께서는 혹시 세상에는 ‘당연히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배움이 적어 모르고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군께서는 아침에 시장통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셨지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장을 향해 별 때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장이 파한 다음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당연히 그러한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시장을 향해 몰려가는 것은 거기에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녁에 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거기에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군께서는 아직껏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당연한 법칙으로부터 그들이 시장을 향해 가거나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법칙에 따라 군께서 권세를 가졌을 때 빈객이 밀물처럼 몰려왔고, 군께서 권세를 잃었을 때 빈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법칙으로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군께서는 쓸데없이 이 당연한 법칙과 다투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군께서 이 점을 헤아리시어 빈객을 웃으며 맞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맹상군이 풍환에게 절을 한 다음 말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삼가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습니다만 그런 극진한 말씀을 듣고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시행착오를 통해 최선의 방법과 지혜를 찾아내라

갈등을 극복하려면 갈등이 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만드는 첫 단계가 된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주된 이유는 자기관리 측면에서의 ‘미성숙함’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부족한 소통의 기술’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 바늘과 같은 ‘본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 상황에 맞는 ‘소통의 기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배려·예의를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어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잔다고 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 ‘기대’보다는 ‘기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기심은 존재의 기본 권리다. 문제는 이기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헛된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상대에 대한 헛된 기대 없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비록 상대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숙함이다. ‘기대’보다는 ‘기여’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일이 나를 돕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시에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야말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지력이다.

●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통합하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느냐, 협력 관계를 유지하느냐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달렸다.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방식에 따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통합한다면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양측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 (K)



지구 반대편 '페루' 제자들에게 한글을 전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박순덕 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 저마다 미뤄둔 여행 계획을 조금씩 꺼내 드는 이때, 박순덕 회원은 제자들의 사진을 꺼내 본다. 멀리 페루에서 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던 현지 학생들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는 언젠가 다시 학생들을 만날 거라고 믿는다. 박순덕 회원의 꿈은 매일 14시간의 시차, 1,000km의 거리를 뛰어넘는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이 운명처럼 내게로 왔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일반봉사단원 125기 박순덕입니다.”

‘KOICA’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파란 조끼를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봉사단원’이라 소개하는 그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박순덕 회원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페루 현지에서 대면으로,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한국에서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해외봉사단원을 꿈꾼 것은 훨씬 오래전부터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운명이었구나’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제게는 해외 봉사가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어학연수를 계획하던 아들이 한국국제협력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2년여간 이집트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고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생각이 깊어지고, 부쩍 어른스러워졌죠. 저도 걸스카우트 학생들과 매달 요양원을 찾아다니던 덕에 봉사 경험이 많았지만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해외 봉사에 대한 동경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여름, 박순덕 회원은 교육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 단체 그린티처스를 통해 케냐 단기 해외 봉사를 다녀오며

급한 갈증을 해소했다. 더불어 마사이족 아이들이 다니는 사마리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생 2막에는 해외 봉사를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해외 봉사를 하는 동안 다 커버린 줄 알았던 자신이 다시 성장하는 듯 느껴져 좋았다. 단순히 해외를 여행하며 느끼는 감동과 현지 학생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얻는 감동은 차원이 달랐다.

2018년 8월, 38년 6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자마자 박순덕 회원은 곧장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에 지원했다. 그리고 4주간의 현지 적응 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페루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생 2막의 새 학기가 페루에서 시작됐다.

Hola! 페루. Hola! 나의 인생 2막

박순덕 회원이 도착한 곳은 페루 우양카요(Huancayo) 있는 페루국립대학교 언어학센터(Ceid-UNCP, Centro de idioma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l Centro del Peru).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매년 많은 학생이 이곳을 찾는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나 한국어 능력을 키워 구직하려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십 대부터 오십 대까지 나이도 천차만별이다. 박순덕 회원은 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쳤다.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김밥, 잡채, 불고기 등 음식을 해 먹이고, 김치도 담갔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한국 노래가 들리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춤을 췄다. 한국 전통 의상을 소개하며, 페루 학생들과 한복을 입고 꽃단장을 해 보기도 했다. 날마다 축제 같은 삶이었다. “40년 가까이 가정교사로 일했고 한식조리사자격증도 취득해서 한국 문화와 음식을 가르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 교사 시절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서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이방인이 느끼는 외로움보다는 현지에서 열리는 K-Pop 대회, 태권도 대회 등을 보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툰에서 멈추는 법은 없다. 박순덕 회원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육 현장에서 평생 배워왔다. 그도 페루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나이 60세가 넘어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낯선 타국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이해하기 쉽겠구나’ 하고 얻는 깨달음도 많았다. 수업이 없는 날은 인근 지역을 여행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배웠다.

코로나19로 막힌 학업, 랜선으로 잇는다

더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무렵,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봉사단원들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진 것. 2020년 3월, 학생들에게 “또 만나자” 인사할 겨를도 없이 부랴부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해외봉사단원으로서 박순덕 회원의 임기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였다. 약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이별이 이토록 길어질 줄 몰랐다. 곧 다시 페루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박순덕 회원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곳은 페루가 아닌 화면 속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파견 대신 원격으로 수업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은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으로 지웠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수업하고, 과제는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고받았다. 14시간의 시차, 1,000km의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페루 학생들은 일과를 마치고 밤 7시 30분부터 들어와 수업을 듣고요. 페루는 인터넷 환경이 나쁜데도 학생들이 학구열이 매우 높아서 수업을 들으려 무척 애씁니다. 한 학생은 이탈리아에 교환학생으로 있는데 현지 시각 새벽 3시 반에 들어와 수업을 듣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사인 제가 게을러질 수가 있나요? 저도 매일 수업 준비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장구, 그림, 조리 등을 배우거나 등산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다. 그래서 그는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의 희망 장학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희망 장학금은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가 정회원이 추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박순덕 회원도 정회원으로 매년 학생들을 추천한다. 공적서 작성 등 할 일이 많지만 100달러면 페루 아이들에게 큰 액수인 것을 알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다시 세계로, 다시 나의 학생들에게로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 믿고 기꺼이 행동하는 것. 박순덕 회원은 그것이 봉사라고 믿는다. 해외 봉사라고 해서 다를 것 없다. 공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재미난 일도 없다. 또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방인인 그에게도 언제나 앓을 자리와 따뜻한 음식과 정을 내어주었다. 박순덕 회원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계획이다. 세계의 문화 유적과 박물관도 두루두루 다녀오고 싶다. 세계 어디에나 제자를 둘 수 있으니 두려운 것이 없다. “해외 봉사’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거든요. 특히 우리에게도 평생 배우고 가르쳐 온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 봉사는 나의 경험을 살리는 동시에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많은 퇴직 교직원들이 해외 봉사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박순덕 회원의 희망의 문도 다시 열리고 있다. 팬데믹으로 끊어진 학업은 온라인으로 연결했지만 만날 수 없는 설움은 소복하게 쌓이기만 했다. 지금이라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환한 얼굴로 자신을 맞이해 줄 것만 같다.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학생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간 얼마나 열심히 스페인어를 갈고닦았던가. 학생들을 만나 웃고 떠드는 그날을 상상하며 박순덕 회원은 오늘도 마음속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를 쓴다. “Hola! 나의 학생들이아!” ㉞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는 여행이 간절하기만 요즘,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숨은 명소와 식도락 여행을 즐길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금강산 자락에 불어오는 산뜻한 초여름 바람 강원도 고성

고성군은 초록빛 숲과 청량감으로 가득한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최북단의 바닷가 고장이다. 설악과 금강의 수려한 자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산굽이 길을 지난 뒤 내려선 바닷가에는 창박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액자처럼 걸린 감성 카페들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금강산의 치맛자락이 동해와 잇달아 있는 초여름 속으로 뛰어들어 보자.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고성군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비,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하나라벤더팜[사진제공·고성군청]

금강과 설악이 만나는 수려한 바닷가



백두대간의 등허리가 뺨어 내려가며 동해와 잇닿은 자리에 자리에 강원도 고성군이 있다. 수려한 풍경으로는 한반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금강산과 설악산이 만나는 고장이다. 북녘땅과 경계를 맞대는 지역으로 개발이 덜 된 탓에 자연 환경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제법 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린 여행지이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는 인접한 속초나 양양에 비해 여행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지만, 최근 고성군에 시설 좋은 호텔과 리조트, 펜션 등이 들어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닷가 해수욕장, 바다 전망 카페, 초여름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보랏빛 라벤더 농장 등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강원도 최북단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고성 여행은 금강과 설악이 만나는 장소에서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가장 먼저 설악의 웅장한 자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소노문 델피노(1588-4888 www.sonohotelsresorts.com, 공제회 제휴 리조트. 정상이 대비 6-80% 할인된 법인 회원가에 이용 가능)에 들러보자. 리조트 주차장 남쪽에 있는 카페 비엔토의 루프탑에 오르면 골프장 그린 너머로 울산바위의 위용을 감상할 수 있다. 소노문 델피노에서는 금강산 권역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에 들어있는 신선봉과 설악의 울산바위를 곁에 두고, 멀리 푸른 동해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다이닝 카페 '로까'는 SNS에서 이미 유명하다.

소노문 델피노 인근에 있는 바우지움조각미술관(033-632-6632 www.bauzium.co.kr) 역시 꼭 한 번 들러봐야 할 문화 공간이다. 지난 2015년 개관한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와 치과의사 부부가 현대 조각의 대중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설립한 사립 미술관이다.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박물관 부문 건축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정원은 소나무와 돌, 테라코타를 주제로 구성되어 곳곳이 방문자들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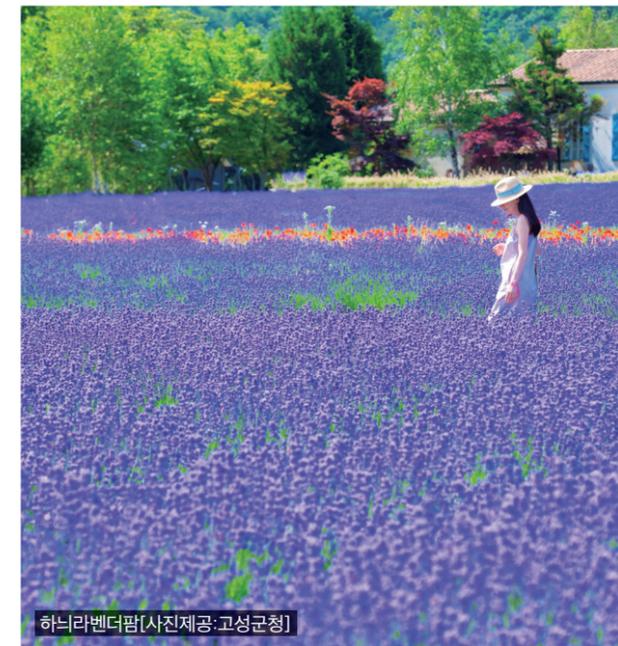
소노문 델피노 전망대 울산바위



보랏빛 라벤더꽃 만개한 강원도의 작은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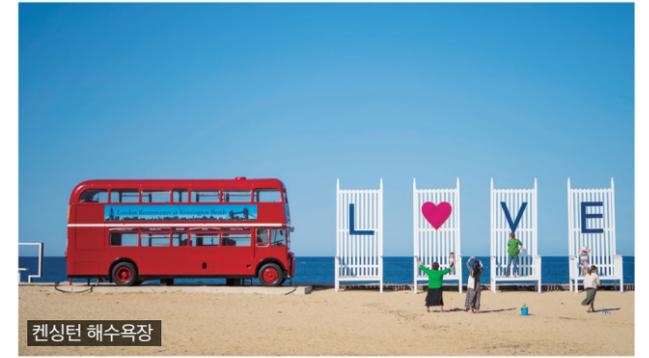
이제 금강산의 치맛자락을 따라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여름을 목전에 둔 6월은 고성군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계절이다.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진부령 너머 간성읍에 자리한 라벤더 농장에서 보랏빛 라벤더가 만개하며 화사한 자태를 뽐어내기 때문이다.

하늬라벤더팜(033-681-0005 www.lavenderfarm.co.kr) 설립자인 하덕호 대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허브숍을 운영하다가 라벤더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고성군 간성읍에 터를 잡고 라벤더 농장을 시작했다. 강원도의 겨울은 매서운 추위로 악명 높아 식물재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의외로 고성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서도 해양성 기후로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라벤더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었다고 한다. 해바라기, 샬비어, 꽃양귀비, 마리골드, 카밀러(케모마일) 등 다양한 품종의 꽃과 허브가 계절을 달리하며 꽃을 피우지만 농장 이름처럼 하늬라벤더팜이 절정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33,000㎡에 달하는 너른 들녘에 심긴 라벤더 군락과 주홍빛 박공지붕 건물이 어우러져 유럽 어딘가로 여행하러 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하늬라벤더팜[사진제공:고성군청]

가진해변 에이프레임 카페 루프탑 전경



켄싱턴 해수욕장

바다 전망 카페에서 만끽하는 여유



하늬라벤더팜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면 마침내 푸른 바다로 나서게 된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바닷가에는 고성군에서 유명한 스퀘어루트와 에이프레임 카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두 카페 모두 커피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빵과 쿠키, 브런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매우 훌륭하다. 화창한 날에는 루프탑에 올라가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에이프레임은 실내 벽면을 온통 서핑 보드로 장식해 놓은 특색 있는 인테리어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한편 가진해변은 피크닉하기 좋은 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얼마 전부터 카페 테일커피에서는 커피와 피크닉 용품을 대여해주는 이색 사업을 시작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조용한 해변은 어느새 고성에서 이름난 피크닉 해변으로 자리 매김했다.



화진포

물론 고성군에는 가진 해변 말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해수욕장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켄싱턴, 봉포, 아야진, 봉수대, 송지호, 화진포 등이 고성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빨간 이층 버스 and 초대형 의자가 명물로 자리매김한 켄싱턴 해수욕장, 서퍼들이 즐겨 찾는 송지호, 커다란 바닷가 호수가 해변 바로 옆에 있는 화진포는 여행 인증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멋진 풍경을 선보이는 곳이다.

남북한 고위층의 여름 휴양지였던 화진포의 수려한 풍경

가진 해변에서 자동차로 약 20여 분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면 우리나라 최북단 어항인 대진항과 점차 가까워진다. 대진항에 도착하기 전 화진포에 꼭 들러보길 바란다. 해변의 모래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瀝湖)라고 부르는데 강원도 동해안에는 이러한 석호가 아주 많다. 강릉 경포호, 속초 청초호와 영랑호, 고성 송지호와 화진포 등이 그러하다. 특히 화진포는 그 경관이 유난히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남북한 고위층의 개인 별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지금도 화진포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화진포는 길이 1.7km 너비 약 70m의 해변으로 바위와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형성된 부드러운 백사장과 수심 1~1.5m의 완만한 경사 덕분에 오랜 세월 여름 피서지로 명성이 높았다. 주차장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소나무 숲과 기암괴석 그리고 곱게 핀 해당화가 연출하는 고즈넉한 분위기는 번잡을 피해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화진포에서 가까운 대진항해상공원과 통일전망대도 둘러 보자.



고성 통일전망대

고성으로 떠나는 식도락 여행 청정한 산과 바다의 맛



물회, 싱싱한 제철 해산물이 듬뿍



물회는 강원도 북쪽 지역의 토속 먹거리다. 뱃사람들이 고기잡이를 나가 배 위에서 먹던 음식으로 생선, 오징어, 해삼 등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넣고 물에 초추장을 풀어서 먹었던 음식에서 비롯된다. 요즘은 물회에 다채로운 해산물 외에도 사과, 배, 당근, 양파, 오이, 상추 등 갖은 채소를 넣고 고추장 양념에 설탕, 물엿, 다진 마늘 등을 추가해 새콤달콤 감칠맛을 더한다. 천진해변 바로 앞에 위치하는 봉포머구리집 고성점(토성면 천진해변길 46)에서 시원한 물회 한 그릇으로 초여름 더위를 잊어 보는 건 어떨까.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들른다는 맛집이 바로 봉포머구리집이다. 이곳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진귀한 광경도 볼 수 있다.

막국수, 동치미 국물과 메밀면의 조화



메밀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강원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별식으로 역사가 깊다. 예전에는 그릇에 메밀면을 담고 거기에 김치국물을 부은 뒤 고명을 얹어 물냉면처럼 먹었는데, 요즘에는 양념장에 섞어 먹는 비빔 막국수의 인기도 좋다. 김치는 배추김치는 물론 나박김치, 동치미 등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김치라면 모두 사용했다고 한다. 고성과 속초 등지에서 즐겨 먹는 막국수로는 메밀면에 동치미 국물을 부어 먹는 동치미 막국수를 으뜸으로 친다. 토성면 백촌리에 위치한 백촌막국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주말에는 줄을 서 기다려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 백도막국수와 금화정막국수도 맛집으로 이름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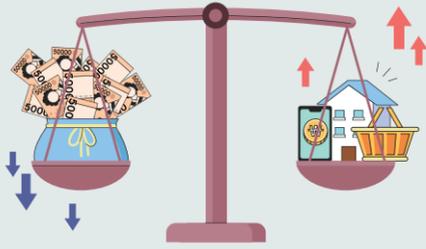


기력 회복에 좋은 건강식 문어



보통 무게 10kg이 넘는 커다란 문어를 대문어라고 부른다. 강원도 고성군은 바로 이 대문어가 많이 잡히는 문어 산지로 명성이 높다. 특히 현내면 대진항의 저도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어장으로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만 조업이 허용된다. 간혹 50kg이 넘는 엄청난 크기의 대왕 문어가 잡혀 뉴스를 통해 매스컴을 타기도 한다. 문어에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졸중 예방을 돕는다는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한다. 문어는 보통 삶아서 숙회로 먹는데 거진항과 대진항 등지의 횡집에서 맛볼 수 있다. ㉞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박 늘어나는 빅스텝 금리 인상



이른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실물 경제에 충격이 큰 조치지만, 이를 감수할 만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빅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설정 시 통상적인 조정폭인 0.25%p 범위보다 큰 조정을 의미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며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결국 빅스텝은 실물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 역대급 유동성이 풀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대부분 국가에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압박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해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의 뉴스, 대담, 토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제로 이코노미」라는 책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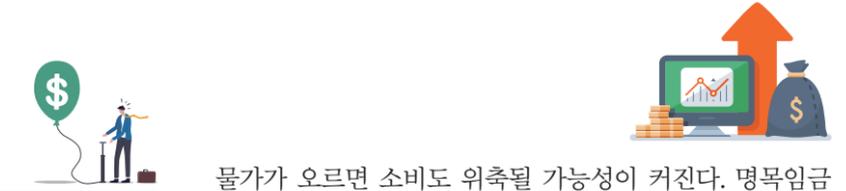
쫓기듯이 금리 인상하는 중앙은행들



5월 FOMC(미국의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미 연준(미국의 중앙은행)이 0.5%p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른바 '빅스텝'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통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0.25%p씩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정도의 금리 조정폭은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작은 걸음걸이'와 같이 작은 보폭이라는 의미로 '베이비스텝(baby step)'이라고 불린다. 베이비스텝의 2배에 달하는 빅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0.5% 수준까지 인하되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2%를 넘는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앞으로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을 대상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이 가격에 반영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내년 중반 미국의 정책금리는 3% 중반 수준에 달한다. 결국, 미국의 정책금리가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보다 높아지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본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이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상보다 심각해진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쫓기듯이 이렇게 금리를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가 상승이다. 올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3%에 달했고, 영국 및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각각 9%와 7.5%까지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낮은 편임에도 4.5%까지 올랐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이 공통으로 2%임을 감안하면 최근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오랜 기간 저성장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면서 잊혀졌지만 원래 중앙은행들의 별명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중앙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계기가 세계대전 후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서 경험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이고 근본적인 중앙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물가상승률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돈을 빨아들이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최근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곡물 가격의 급등과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중국 봉쇄 정책의 충격임을 감안하면 전망은 밝지 않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국제 석유 가격이나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아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보다는, 국제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급등에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더해진 것이 크다. 그 때문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대출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통화 긴축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급등하는 물가는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및 가공식품 가격이다. 모두 서민들이 안 쓰거나 안 먹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결국 서민 가계가 직면하는 체감 물가상승률은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으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 명목임금은 전년 대비 7% 올랐지만, 물가는 더욱 크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도리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어려워지고 경기는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더욱 오를 수 있다. 실질임금을 보전하려는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높아진 비용을 수요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결국, 높은 물가상승률이 임금 상승을 통해 더욱 높아지는 임금·가격 상승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현실화할 수 있다. 그 결과,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결합하면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이다.

금리 인상 부작용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앙은행들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금리 인상은 마치 '항암제 주사'에 비유할 수 있다. 경제에 커다란 위협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항암제 주사'를 맞은 결과,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와 동시에 경기 침체라는 항암제 주사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의 위기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 경기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까지 향후 상당 기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과 같은 통화 긴축 기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둔화 및 위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 수단인 '재정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떠오른다.

정부가 많은 돈을 쓰기 어렵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경제 성장을 제고 효과가 높거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특정 지역의 금리만 낮추는 식의 선별적 정책이 불가능하지만 재정정책은 필요한 부문에만 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㉔



내 불안과 우울이 기후 변화 때문?

녹아버린 얼음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북극곰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날씨 예보를 챙기듯 공기의 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시진 않나요? 먼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줄만 알았던 지구 환경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의 문제로, 나의 일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녹음이 푸르른 6월, 이 푸르름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실천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글 (주)다인

생태계 환경이 유발하는 우울과 불안

몇 해 전 호주의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9월에 시작된 산불을 진화하는 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로 인해 10억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불을 피해 겨우 도망쳐 나온 작은 생명체들이 허겁지겁 목을 축이는 영상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하는 생태계 환경으로 인해 우울, 불안, 절망에 관한 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를 ‘생태 슬픔(ecological grief)’ 또는 ‘기후 슬픔(climate

grief)’이라고 합니다. 생태 슬픔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우울감, 무기력함 등을 겪는 ‘코로나 블루’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영국의 바스대학교를 포함한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세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매우 또는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불안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응답자의 4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이들의 4분의 3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중 절반 이상인 56%가 인류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분노,

슬픔, 절망감, 수치심을 느끼는 양면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나비효과,

우리의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인간이 느끼는 기본 정서를 분노, 혐오, 두려움, 기쁨, 외로움, 놀라움이라는 6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각각의 정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기쁨 이외의 부정적인 정서는 피하고 싶겠지만 나름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느낄 때 사람은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생태 슬픔’이라는 정서 상태 역시 개인에 따라 그 깊이나 너비가 다르겠지만 그 감정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슬픈 마음 상태에 무력하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당면한 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된 힘을 키우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을 잠시 참으면 두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 욕구를 참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비단 아이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 보호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요?

* 기후 변화에 대한 정서 인식하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나와 지구 환경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교실 공간 안에서 실천의 효과 체험하기

교실 안에 초록 식물을 놓아두는 것이 습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활동은 막연하기만 한 환경 문제를 생생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가 되어 북극곰, 펭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환경 보호에 대한 동기를 내면 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마음은 너무 무겁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위험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린 시기부터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선한 가치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교 교육 현장의 여러분 또한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㉞

♥ 「The-K 마음심」 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마음심 홈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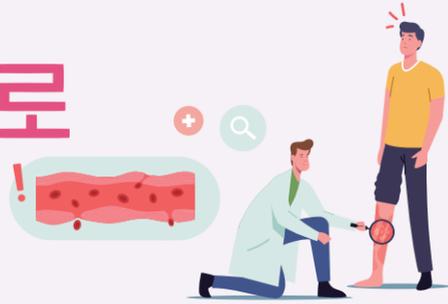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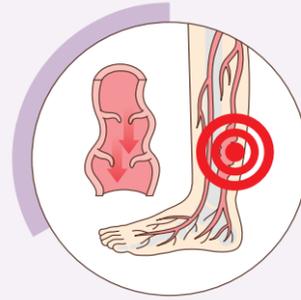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로 더위가 더 두려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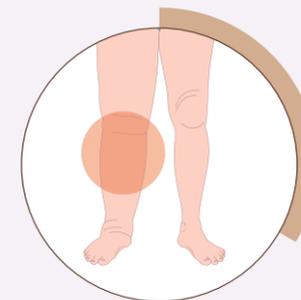
시원한 반바지, 치마를 찾게 되는 여름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하지정맥류 환자다. 종아리에 핏줄 돌출,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 하지정맥류 환자는 보기 좋지 않은 다리가 드러날까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치마 등을 입을 걸 망설이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하지정맥류 환자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진료받는다고 한다. 당장 시각적 혐오감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도 방치하면 피부가 검게 착색되거나 궤양이 나타나는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미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의 예방법을 알아본다.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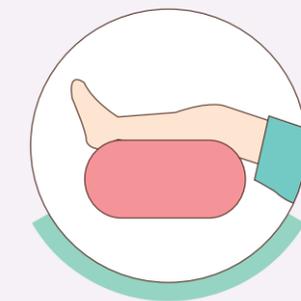
다리에 갇힌 혈액이 유발하는 하지정맥류

다리까지 뻗어 나온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까지 돌아가야 한다. 다리 혈관 속 판막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정맥류는 판막이 손상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리 정맥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정맥벽이 약해지면서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한다. 정맥이 길게 늘어나 외관으로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게 된다. 여름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곤 하는데, 무더운 날씨에 다리 혈관이 늘어지면서 다리에 머무는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로 하지정맥류를 앓은 가족이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비만인 사람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임신했을 때 호르몬 변화와 복압 상승으로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출산 후 1년 안에 대다수 정상으로 회복된다.



주의해야 하는 초기 증상들

모든 하지정맥류 환자에게서 혈관이 두드러지진 않는다. 정맥을 연결하는 통로인 관통 정맥의 판막에 이상이 생기거나, 피부 가까이 있는 표재정맥에 이상이 있다면 혈관이 내부에서 부풀어 눈에 보일 정도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이는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는 원인이 되곤 하는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액이 계속 다리에 고여 있으면 혈관에 있던 물이 외부로 빠져나와 다리 부기(부종)가 심해진다. 증상이 더 악화하면 적혈구까지 빠져나와 피부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하는 등 피부 착색이 일어날 수 있다. 압력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염증 반응도 나타나는데,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피부가 딱딱해지는 지방 피부 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 피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피부가 짓물러지는 피부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 외에 하지정맥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으로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저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저녁에 자려 하면 쥐가 나거나 다리가 가렵고 화끈거리는 것 등이 있다.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혈액 흐름이 건강하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잘 때 발목 밑에 담요나 베개를 받쳐 다리가 심장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 고지방 음식 섭취는 삼가야 한다. 다리 근육을 단련해 혈액 순환을 돕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대신 규칙적으로 걷거나 스트레칭해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몸에 꼭 끼는 레깅스나 청바지는 정맥 흐름을 방해하므로 피한다. 까치발 동작을 자주 하는 것도 추천한다. 뒤꿈치를 들면 다리 근육이 수축해 정맥이 압박받으면서 혈류 흐름이 증가할 수 있다. 정맥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빨리 전달된다. 다리 근육으로 수축이 힘들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과체중이라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됐다면,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진료받아야 한다. ㉞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땅속의 사과' 6월 햇감자로 만드는 이색 음식

감자만큼 다재다능한 식재료도 없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찌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어떤 식으로 조리해도 맛이 좋아 반찬부터 간식, 술안주, 브런치에도 빠지지 않는 단골 재료입니다. 감자는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음력 5월에 수확을 시작합니다. 특히나 '하지(夏至)' 전후로 수확하는 햇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하는데 그 맛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봄 햇살에 무럭무럭 자란 햇감자로 만드는 이색 조리법을 찾아보겠습니다. The-K 매거진과 함께 포슬포슬 제철 맛 좋은 감자로 특별한 밥상을 준비해 보세요.

글 편집실 / 사진 쿠킨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 감자

감자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감자의 원래 고향은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입니다. 추위에 강하고 땅이 비옥하지 않아도 단기간에 재배하기 쉽습니다. 오래전 잉카인들의 주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24년경에 들어왔는데 흉년과 전쟁 등 곡식이 부족했던 시기마다 기근을 해결해 주는 대체 식량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쌀, 밀, 옥수수과 함께 세계 4대 작물로 꼽힐 만큼 우리에게 주요한 식량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땅속의 사과'

프랑스에서는 감자를 '뽀뽀 드 페르(Pomme de terre)'라고 부릅니다. '땅속의 사과'라는 뜻인데요, 이는 감자의 비타민C 함유량 때문입니다. 6월에 먹는 제철 햇감자는 사과보다 비타민C를 무려 3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 100g마다 평균 36mg의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과일과 달리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싸여 있어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찌거나 삶아도 손실이 적습니다. 그러니 6월에는 하루에 감자 2개 정도만 섭취해도 하루 비타민C 섭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 노화 방지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염증 효과도 있어 염증 수치 감소에도 좋고 면역력이 증강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 외에도 비타민B1과 칼륨도 풍부해 고혈압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장류나 김치 등 나트륨 섭취가 많은 한국인에게 필수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맛있는 감자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 방법

감자는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을 고릅니다. 표면에 흠집이 덜하고 매끄러우면서 주름이 없는 것이 신선한 감자입니다. 구매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때 사과를 함께 보관하면 습기가 생기지 않고 썩도 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썩이 난 감자라면 솔라닌 독소로 푸릇해진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껍질을 깎을 때 푸르게 변색한 것을 완전히 깎아내고, 썩도 말끔히 도려내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좋은 것은 썩이 나지 않은 신선한 햇감자를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깎 감자라면 갈변할 수 있으므로 식초 물이나 레몬즙을 넣은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뺀 후에 비닐봉지나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2~3일 동안은 색이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고 남은 감자도 이렇게 보관해보세요. ☺



감자 냉채

초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엔 감자 냉채가 안성맞춤입니다. 흔히 냉채는 오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는데요, 감자를 사용하면 더위에 지친 입맛도 살리면서 색다른 냉채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주재료 감자 400g 어린잎 채소 2컵
- 드레싱 검은깨 3큰술, 식초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올리브유 2큰술, 양조간장 1큰술, 소금 약간

* 검은깨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대로 밀어 부수면 편리해요.

* 만드는 방법



❶ 감자는 껍질을 벗겨 가늘게 채썰고 2~3회 행군 후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둔다.



❷ 검은깨는 곱게 갈아 볼에 담고 나머지 드레싱 재료를 넣어 섞는다.

❸ 감자를 체에 받쳐 물기를 뺀 후 어린잎과 함께 그릇에 담고 드레싱을 뿌려 낸다.





명란 감자구이

감자와 명란젓의 색다른 만남! 소금으로 간하는 대신 짭조름한 명란젓을 올려 풍미를 더합니다. 명란 특유의 감칠맛과 어우러져 더욱 고소하고 맛있는 감자구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이나 맥주 안주로도 그만입니다.



• **주재료** 감자 3개, 명란젓 40g, 플레인 요거트 6큰술, 쪽파 2줄, 올리브유 약간, 소금 약간, 후추 약간

* 명란젓을 발라 낼 때는 알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칼등으로 긁어내세요.

* 만드는 방법

❶ 감자는 잘 삶아서 한 김 식혀 2등분하고, 1cm 정도 두께를 남기고 속을 파낸다.



❷ 명란젓은 2등분하여 속만 발라내고, 쪽파는 송송 썬다.



❸ 볼에 파낸 감자와 명란, 소금, 후추, 쪽파를 넣고 잘 섞는다.



❹ 속을 파낸 감자 그릇에 ③을 담고 올리브유를 조금씩 뿌려 준 뒤, 22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5분 정도 노릇하게 굽는다.

❺ 플레인 요거트와 곁들여 낸다.



소고기 감자 말이

달콤한 소스와 어우러지는 소고기와 감자 맛이 일품입니다. 알싸한 마늘종의 향이 배어 느끼한 맛도 덜하고요. 특별한 날 손님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가 포만감을 주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든든합니다.



• **주재료** 소고기 채끝살 (또는 불고기감) 200g, 감자 1개, 마늘종 4대, 녹말가루 1큰술, 소금 후추 약간, 식용유 2큰술, 파슬리 또는 치즈 가루 약간, 방울토마토 10개
• **소스** 토마토케첩 6큰술, 물 6큰술, 간장 3큰술, 설탕 0.5큰술, 고추기름 3큰술, 물엿 1큰술

* 감자를 삶을 때는 70%만 익히는 것이 좋아요.

* 만드는 방법



❶ 소고기는 얇게 펴서 소금, 후추를 뿌리고 한쪽 면에 채로 흔들어 녹말가루를 뿌려 둔다.

❷ 껍질을 벗긴 감자는 1.5cm 두께로 썰어 삶고, 마늘종은 비슷한 크기로 잘라 팬에 볶는다.



❸ 준비해 둔 소고기의 녹말가루가 묻은 쪽에 감자와 마늘종을 올리고 돌 돌 만 다음, 이음새가 풀리지 않도록 이쑤시개로 고정한다.

❹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③의 고기말이를 굴러가며 노릇하게 익힌다.



❺ 다른 팬에 소스 재료와 방울토마토를 섞어 넣고 끓이다가 ④의 고기말이를 넣어 자작하게 졸인다.

❻ 따뜻할 때 기호에 맞춰 치즈 가루와 파슬리를 뿌려 낸다.



플라스틱의 대안, 알루미늄 캔의 딜레마

높은 재활용률이 무색한 많은 전기 사용·탄소 발생

버려지는 캔을 활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면서 알루미늄 캔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같은 용도로 다시 쓰는 알루미늄 캔의 '닫힌 순환 고리'는 이상적인 재활용 체계로 꼽힙니다. 세계적인 생수·음료 업계에서 플라스틱 물병 대신 알루미늄 캔 제품을 내놓고 있고 미국의 경우, 알루미늄 캔 하나가 연간 6~7번 다시 제작될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캔 재활용률의 경우 알루미늄 캔이 약 30%로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약 20%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알루미늄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 제공) 하지만, 알루미늄 캔 재활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전기가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도 적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캔의 속성과 재활용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똑똑한 재활용 방법과 함께 버려지는 통조림 캔을 활용한 생활 속 소품을 만드는 법도 소개합니다.

글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중적으로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8년에 첫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종류의 캔 용기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데 참치, 소스류, 과일 통조림 등 식음료는 물론, 최근 맥주 시장에서 캔 수급 부족 문제가 떠오를 정도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높은 재활용률이 무색한 적지 않은 환경비용

플라스틱(PET) 물병을 많이 사용하는 생수 업계가 재활용률이 높은 알루미늄 캔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에비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 식음료 기업 다논은 지난 2025년까지 50%의 플라스틱 물병을 알루미늄 캔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등의 음료기업이 플라스틱 생수



안전한 식품 보관을 돕는 알루미늄 캔의 역사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통조림 캔 포장법은 나뉘어 사가 깊습니다. 프랑스의 제빵업자이자 셰프였던 아페르 니콜라가 가열 살균한 샴페인 병에 수프나 채소 등을 넣고 코르크 마개에 왁스 밀봉을 한 병조림을 시초로 1810년 영국의 피터 듀린이 주석 코팅된 철제 깡통에 음식을 보존하는 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어 주석 깡통(Tin Caniste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캔을 '틴(Tin)', 미국에서는 '캔(Can)'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캔은 운반이 쉽고 오랫동안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군인과 선원들을 통해 널리 이용되고 그 이후 대량



병 남용에 따른 대중의 거부감을 인식해 캔 형태로 공급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연 알루미늄은 플라스틱 물병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알루미늄 캔이 바다를 떠다니지는 않을지 몰라도 '환경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재생 소재가 아닌 처음 만들어지는 알루미늄 캔의 경우,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병보다 최대 세 배까지 많습니다. 게다가 광산에서 알루미늄을 캐 때도 상당한 양의 유독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높은 탄소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알루미늄 캔의 높은 재활용률에 대해서 마케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알루미늄의 재활용

알루미늄 캔 생산업체 노벨리스코리아에 의하면 국내 캔 수거율은 80%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00%



원료 회수가 가능하지만, 재활용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캔의 몸체와 마개, 꼭지는 각각 조금씩 다른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어 녹이는 과정에서 산화되는 정도 차이가 크게 나 금속 손실이 일어나며 또 부착된 라벨 스티커도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알루미늄 재활용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알루미늄 캔을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보는 기업들은 알루미늄이 플라스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회수와 선별이 쉬운 편이며 원료 손실이 거의 없어 재활용 시 낭비가 덜하다고 말합니다. 무한 반복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으로 원재료를 제련하는 비용보다 폐알루미늄 포장재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소모도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생 알루미늄 원료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재활용의 확장성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이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일 것입니다.

폐알루미늄 제품 똑똑하게 분리 배출하기

알루미늄 캔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 등은 깨끗하게 떼어내고 버려주세요.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밟아서 압축해서 버리는 것이 좋으며 캔류의 수거 장소가 종류에 따라 나누어져 있을 경우, 일반적인 알루미늄 캔은 캔류로 표기된 수거 장소에 배출하고, 그 외 철로 제작된 캔은 고철들과 함께 배출하면 됩니다.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포일 역시 재활용이 됩니다. 사용한 포일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통조림 캔을 활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



식기류 보관함



❶ 깨끗하게 씻은 빈 캔 3개와 작은 나무 도마를 준비한 후 알루미늄 시트지를 캔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 후 캔 몸통에 붙여줍니다.



❷ 화이트 마카로 식기류의 이름을 적어 3개의 캔에 각각 붙여주세요.



❸ 완성된 캔들을 미니 도마 위에 붙여주면 나무의 식기류 보관함이 완성됩니다.

문구류 수납함



❶ 길이가 긴 통조림 캔 1개와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통조림 캔 3개를 준비하고 패브릭 스티커를 캔 크기에 맞춰 잘라준 후, 붙여줍니다.



❷ 작은 캔들을 큰 캔 옆에 양면테이프나 글루건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붙여 고정해주세요.



❸ 마지막으로 어울리는 리본 테이프로 장식을 해주면 귀여운 문구류 수납함이 완성됩니다.

4. signature raspberry cupcake - £ 14.0



QR 코드를 스캔하면 알루미늄 캔을 활용해 식기류 보관함, 문구류 수납함, 조명 커버 등 생활 소품 만드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조림 캔을 재활용한 분위기 있는 조명 커버

빈 통조림 캔 옆면에 원하는 도안을 대고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줍니다. 원하는 색상의 아크릴 물감으로 통조림 캔 전체를 칠해준 후 잘 말려주세요. 완성된 통조림 조명 커버는 집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갓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대로 캔들에 얹어 캔들 라이트 커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㉞



한국교직원공제회 스승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 현장 스케치

존경하는 선생님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혼란을 겪었던 지난 2년 동안 학교 교실 역시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야 했던 스승들의 노력은 빛났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의 스승들을 위해 공제회가 나섰다. 스승의 날을 맞아 그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한 The-K 행복서비스 스승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를 준비한 것이다. 국내 정상급 가수과 오케스트라의 고품격 공연과 퀴즈쇼, 학생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펼쳐진 뜨거운 행사 현장으로 함께 떠나본다.

글 신시내 / 사진 김선아

존경과 감사를 담은 특별한 온오프라인 콘서트

지난 5월 12일 저녁 여름이 가까워진 탓에 길었던 해가 모습을 감추자 용인 포은아트홀에는 관객들이 분주하게 모이기 시작했다. 공연장 곳곳에는 분홍색 배경과 카네이션으로 꾸민 입간판이 오늘의 행사를 화사하게 알리고 있었다. 입간판에는 오늘의 행사 취지를 알리는 ‘일상 회복 힐링 콘서트/일상을 위한 특별한 열정, 스승의 날’이라고 쓰여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The-K 행복서비스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2년 만에 열렸다. 모처럼 공연장 나들

이에 나선 회원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가족, 동료 교사, 연인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설레는 마음을 나눴다. 관객들은 공연장 로비 중앙에 꾸러진 포토존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었고 공제회에서 준비한 화분을 선물로 받으며 스승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연 관람은 물론 실시간으로 진행된 채팅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 기획 단계부터 더 많은 회원을 공연에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공제회의 노력이 느껴졌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원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다.

설레는 공연의 시작, 터져 나오는 박수와 뜨거운 환영

기념행사에는 오프라인으로 380명(동반 760명), 온라인으로 420명이 초대됐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연장의 모든 참가자는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썼고 공연장 내 좌석은 거리두기를 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오정연 아나운서가 등장하자 모두 반가운 환호성을 보냈다. 오 아나운서는 객석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학교를 지키고, 처음 해 보는 비대면 수업이 낯설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헌신을 해 주셨다”라며 “선생님들, 회원님들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해진 교육위원장 축사에 이어 첫 공연의 주인공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의 최연소 출연자 김유하가 등장했다. 작고 귀여운 모습의 김유하가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에서는 ‘귀엽다’ 등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김봉미 지휘자가 이끄는 베하필하모니의 연주로 시작된 첫 곡은 가수 이선희의 대표곡 ‘아름다운 강산’이었다. 작은 체구에서 터져 나오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마저 땀 뚫리게 했고 이어진 노래 정수라의 ‘난 너에게’는 훈훈했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아련하게 바꾸었다.

다음으로 개그맨 정범균이 MC로 등장해 깜짝 퀴즈쇼를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관객들 모두가 즐기는 퀴즈쇼의 첫 번째 문제는 창간 5주년을 맞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표 소식지이자 대회원 소통 채널을 맞추는 것이었다. 「The-K 매거진」이라는 정답을 모를 리 없는 회원들은 모두가 손을 들었고 온라인 채팅창 역시 정답자 이름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이후 네 번째 퀴즈까지 이어지는 퀴즈쇼로 차분하던 객석에 점차 웃음과 박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천상의 하모니가 전해 준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

퀴즈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팝페라 그룹 안세권과 팬텀프렌즈가 등장해 천상의 하모니를 들려줬다. 첫 곡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네 명의 멤버가 차례로 화음을 쌓아가며 등장하는 환상적인 연출에 그간 듣던 뮤지컬 버전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곧 이어 영화 「어바웃타임」의 OST ‘IL MOND’이 이어졌고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부를 때는 관객들이 함께 ‘떼창’을 하며 즐거움도 만끽했다.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 공식 질문 ‘나에게 선생님이란?’이라는 질문이 주어졌는데 안세권은 “선생님은 고향과도 같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완도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뵈는데 그때마다 반겨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답해 관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유명 오페라 「투란도트」의 ‘Nessun Dorma’를 부르며 공연을 마친 안세권과 팬텀프렌즈는 “이 곡은 승리의





확신에 차서 부르는 노래다. 마지막 구절인 '빈체로'는 '승리'라는 뜻으로, 오늘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승리를 가지고 사시길 바란다"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다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창력을 지닌 가수 소향이가 등장해 '바람의 노래'를 부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노래 전에 건넰던 상냥한 인사와 상반되는 파워풀한 가창력에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노래에 빠져들었다. 이후 'You raise me up', 'Misty'가 연달아 이어졌다. 가수 소향에게도 '나에게 선생님이란?' 질문이 던져졌고 "삶의 모델이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학생들에게 보여 줘야 하고, 책임감 가득한 자리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존경심을 담아 대답했다.

재미와 공감을 담은 토크 콘서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연이 중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관객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토크 콘서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너가 열렸다. 이 코너에서는 실제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장해 공제회 회원 관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사친의 키가 저보다 작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였다. 관객석에서는 진심 어린 답변들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시간이 답이다. 나도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보다 키가 컸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며 지금은 훨씬 키가 큰 남편과 나란히 서서 키를 비교해 보여주는 유쾌한 모습을 연출해 주었다. 두 번째 고민은 "뭉든지 열심히, 잘하는 나이지만,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였다. '영양제를 바른다' '충분히 자고, 운동한다' 같은 해결책이 등장했으나 안타깝게 이미 해봤다는 학생의 답변에 한 회원은 "아들 둘의 습관을 고친 방법인데 기타를 배우면 된다"라고 조언했고 신선한 답변에 학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스트라의 압도적인 연주와 가수 에일리의 공연

다음은 공연 내내 반주를 담당할 베하필하모닉의 순서였다. 32인조 오케스트라의 압도적인 울림으로 「위플래쉬」 OST 'Fletcher's Song in club'과 「미션 임파서블」 OST, 「대부」 OST, 「인디애나 존스」 OST 메들리, 마지막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OST 'He's a Pirate'을 연이어 연주하며 모두에게 영화 속 한 장면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했다. 마지막 출연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바 에일리가 무대 위에 올랐다. 에일리는 자신의 대표곡 'U&I'를 부르며 절도 있는 안무를 곁들였다. 앞선 무대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에 다시금 관객들은 큰소리로 환호했고, 에일리는 이에 화답하듯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 불렀다. 두 번째 곡은 드라마 「도깨비」 OST로도 유명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신나는 댄스곡인 '보여줄게'를 열창하고 무대를 마친



에일리에게 큰 박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을 맞은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한데 모여 부르는 스승의 은혜 노래 영상이 흘러나왔다.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것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모든 분을 응원한다"라는 진행자의 인사말로 모든 공연은 끝을 맺었다.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공연의 여운을 즐겼고 저마다 인상적이었던 공연 후일담을 나눴다. 2022년 스승의 날 힐링 콘서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교실을 지켜온 선생님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설렘과 기쁨을 전하기에 충분했다. 함께 자리하지 못한 모든 선생님들께도 관객들이 느꼈던 격려와 희망의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



M i n i I n t e r v i e w

“회원님들의 뜨거운 현장 열기에 응답을 얻었습니다!”



백종진 팀장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부 문화복지팀)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는데, 소감은 어떤지?
연초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었기에, 현장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려와는 달리 수많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경험해 보니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 문화 행사는 어떻게 운영될지, 회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제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문화복지 행사는 많은 회원님이 참여하실 수 있는 문화복지 콘텐츠의 구성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수혜 인원의 증가라는 양적 성장과 행사 참여자의 만족이라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정된 다양한 문화복지 행사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훌륭했던 공연에 감동, 친구와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현숙, 박정숙 특별회원

이렇게 운 좋게 당첨이 돼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기대보다 훌륭했던 공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공연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공연 많이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상이지만, 힘이 되는 공연이었어요. 다시 힘을 내 교실로 돌아갑니다”



이유리 회원
(서울 남정초등학교)

최근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많이 울적했어요. 오늘의 공연과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밝은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내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

부릉부릉~ 향긋한 커피와 감사의 마음을 한가득 신고 달려왔어요

두 번째 현장 이야기: 경기 문산수역중·고등학교

5월은 참으로 분주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챙기고 돌아봐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중에서도 스승의 날은 많은 선생님에게 무수한 소회를 일으키는 날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던 스승님과 나를 보면서 또 같은 꿈을 꿀 제자들을 동시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기지요.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의 마지막 즈음에서 맞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 파주에 위치한 문산수역중·고등학교를 찾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습니다.

글 이경희 / 사진 성민하



스승의 날,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경기도 북단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수역고등학교의 풍경은 그 오랜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학교를 둘러싼 길고 푸른 5월의 신록, 드넓은 부지 곳곳에 들어선 건물들, 요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잔디 깔린 넓은 운동장,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빛나는 역사를 가진 문산수역고등학교와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과 잘 어우러진다.

오늘 「The-K 매거진」이 준비한 커피트럭이 자리를 잡은 곳은 눈앞에 운동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본관 건물 근처다. 선생님들을 위한 응원 문구가 한가득 붙은, 봄처럼 어여쁜 민트색 커피 트럭이 자리를 잡자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이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눈을 동그랗게 뜬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카네이션꽃과 「The-K 매거진」, 선생님들께 드릴 작은 선물까지 준비가 모두 끝나자 이 모습에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벤트에 사연을 보낸 전혜인 교사다.

올해로 교직 생활 15년 차를 맞은 전혜인 교사에게 문산수역고등학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배우고 익혔던 학생으로서의 시간, 나누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시간들이 오롯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연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선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스승의 날을 축하하고 싶었다는 전혜인 교사가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사실 커피트럭 이벤트에 선정되고 나서 걱정이 많았어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제가 준비를 다 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The-K 매거진」 측에서 계속 소통을 해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심지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카네이션까지 준비해주셔서 정말 크게 감동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전혜인 교사가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는다.

지역 명문에서 전국 명문으로 거듭나다

11시 30분이 넘자, 교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커피트럭을 발견하곤 기대와 흥분이 엮게 서린 목소리로 작게 환호성을 지른다. ‘경기 문산수역중·고등학교 교직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억 개의 꿈이 자라는 곳, 수억 개의 행복이 피어나는 곳’ ‘경기 문산수역중·고등학교에 「The-K 매거진」이 감사의 마음 신고’ 등 응원 문구가 가득한 사랑스러운 커피트럭의 외관과 아메리카노, 바닐라 라떼, 애플망고 에이드, 페퍼민트 티 등 10개가 훌쩍 넘어가는 메뉴를 고르는 즐거움이 풍선처럼 동실동실 부풀어 오르는 덕분이다. 선생님들의 즐거움을 지켜보는 학생들 또한 덩달아 웃으며 주위를 맴돌니 지금 이 시간이 그저 너무도 행복하게 느껴진다.



이창석 교장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카네이션꽃을 받은 뒤 「The-K 매거진」과 기념품까지 받은 교사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함박웃음을 짓고 서 있는 이창석 교장선생님이다. “문산수역중·고등학교는 학생

들과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학교예요. 크든 작든 주체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교육청의 공모사업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 30~40건을 해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일에 자꾸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들 자발적으로 해냅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뭐든 최선을 다해요.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전혜인 교사가 「The-K 매거진」 신고 달려가는 커피트럭 이벤트에 선정됐다면서 허락을 구할 때도 더 들을 것도 없이 “OK!”를 외치고 고맙다, 잘해보라고 격려했다는 이창석 교장의 파안대소에서 문산수역중·고등학교의 분위기가 새록새록 느껴진다.

문산수역중·고등학교는 도시의 학교와는 사뭇 다른 관계성을 갖고 있는 학교이다. 경기 북부 농촌지역에서는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학교에 비해 학교의 역할과 교사의 책무가 비할 데 없이 크기 때문이다. 파주라는 지역 특색을 살린 통일

공감 지수 증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가입된 10권역 중심 학교로서, 유네스코 국제 이해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세계 평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문산수역중·고등학교 덕분에 학생들이 각각 저마다 특색있는 경험과 성장기를 완성해가며 높은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 어렵고 긴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은 교사다.

학원과 입시 컨설턴트, 때로는 부모 역할까지 해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을 살살이 살피면서 무한한 지원과 응원으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렬히 도와주고 있는 덕분이다. 전혜인 교사가 학창 시절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저런 따뜻한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꿈을 꿔던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닌 셈이다.



문산수역중·고등학교 전경



남다른 스승과 제자 사이, 우리 학교의 힘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커피와 담소가 한창 흐드러진 가운데 커피트럭 주변을 빙빙 돌던 웬 여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전혜인 교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곤 수줍게 편지 한 통을 내밀고는 냅다 도망을 간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편지를 꺼내 읽는 전혜인 교사의 얼굴에 잠시 뒤 물감처럼 미소가 번져가는데, 이를 지켜보는 이의 궁금증이 덩달아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전 교사의 허락하에 살짝 들여다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좋은 스승은 설명하고 뛰어난 스승은 증명하며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선생님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선생님을 만난 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없을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스승의 날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감동이 전혜인 교사의 표정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점심 급식이 끝난 뒤 급식실 직원까지 살뜰하게 커피와 음료를 챙겨가고, 내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끝까지 남아 선생님과 수다를 떨던 학생들에게까지 음료수가 돌아오니 아이들의 한바탕 웃음에 그야말로 신나는 축제의 마무리다.

“오늘 이벤트가 모든 선생님께 스승의 날을 기념해 서로를 격려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The-K 매거진」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직원공제회의 전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나오는 매거진을 정말 정말 열심히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하.” ㉞



Mini Interview



김진희 교사

“후배 선생님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문산수역중·고등학교는 유독 사랑이 충만한 학교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한없이 헌신적이고 또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따라옵니다. 교사들은 각자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해 학습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교내 인테리어 공사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1년 내내 끊임없이 학생을 위해 도전하고 연구하며 성과를 내는 분위기가 늘 존재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 했던 스승의 날 기념 커피트럭 이벤트가 찾아와 아주 놀라고 또 감격했습니다. 전혜인 선생님과 교직원공제회 측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김은하 교사

“오래도록 잊지 못할 특별한 스승의 날이었습시다”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 간의 유대관계가 유독 좋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선배 교사들이 연륜과 경력에서 빚어진 아이디어를 낸다면 후배 교사들은 최신 트렌드나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늘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듯 돈독한 선후배, 동기 교사들을 위해 마련해준 전혜인 선생님의 특별한 스승의 날 이벤트에 많이 놀랐고 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보자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심하게 이벤트를 챙겨주신 교직원공제회 「The-K 매거진」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교육 가족과 소통하는 The-K 크리에이터 2기 설레는 첫 시작을 소개합니다

지난 2020년 실제 회원으로 구성, 첫 출범해 2년간 공제회, 출자사, 교육&업무 관련 고품격 기사 및 영상 콘텐츠로 교육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던 The-K 크리에이터 1기 18명의 눈부신 활약이 마무리되고, 2022년 4월 1일 The-K 크리에이터 2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총 20명(*기사 8명, 영상 12명)의 다양한 지역·소속·연령·성별의 회원님이 선정되었고, 지난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블로그, 유튜브 채널에 첫 시작의 열정과 설렘을 가득 담은 콘텐츠들이 게재되었습니다. 교육 가족들이 알찬 정보와 함께 힐링,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사·영상 콘텐츠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2년 The-K 크리에이터 2기 20명의 회원님들께서 콘텐츠 제작과 멋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가족들의 응원과 기대, 공감과 참여 부탁과 함께 2기 크리에이터들의 선정 소감과 다짐까지! 그 힘찬 시작을 교육 가족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K)

The-K 크리에이터 2기들의 소중한, 알차고, 유쾌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은 교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글과 영상으로 매일 찾아올 예정입니다. 20명 중 첫 활동을 시작한 선생님들의 생생한 콘텐츠를 함께 만나보시고, 응원의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blog 풍성한 글과 다채로운 사진으로 유익한 정보 한 번에 모아보세요.

진로체험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모두를 위한 A to Z
- The-K 크리에이터 박정연 선생님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진로 체험장이 있다? 고민하는 선생님을 위한 학교 안팎의 청소년 기관 등 진로체험 운영 지원 서비스들을 소개합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 국내여행 핫 플레이스 소개
- The-K 크리에이터 한동신 선생님

1년 중 가장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즘! 생동하는 봄을 느낄 수 있도록 숨겨진 보물 같은, 꽃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국내 명소들을 직접 소개합니다. 함께 떠나보아요!

교육가족을 위한 결혼 관련 혜택 총정리!
- The-K 크리에이터 장원호 선생님

결혼기념품, 예식장, 대여서비스, 신혼여행 등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결혼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과 정보들을 실제 회원의 입장에서 알차게 담아 소개합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한 교직원복지카드 비교 Tip!
- The-K 크리에이터 안소연 선생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직원복지카드, 하나카드와 신한카드의 비슷한 듯 다른 주요 특 장점, 그리고 세부내용을 한 번에 비교해드립니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만나보세요.

이사하기 좋은 계절! 이사 꿀.팁. 대방출
- The-K 크리에이터 이지원 선생님

복잡한 이사 행정 절차,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허가 이사종합정보 사이트부터 짐 정리까지, 이사를 앞둔 교육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합니다.

직업체험 게임 추천 1탄, 'Project Hospital'
- The-K 크리에이터 이정환 선생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소개하는 시리즈 영상의 1편, 병원 운영 게임을 소개합니다. 병원에서의 간접 직업체험까지,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면 좋은 업무용 꿀템 소개
- The-K 크리에이터 김희원 선생님

선생님들이 업무에 사용하면 좋은 사무용품과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실제 사무용품 모습과 활용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는 유익하고 알찬 영상을 준비했어요.

교육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앱 추천
- The-K 크리에이터 김광운 선생님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 깔끔한 일정 관리를 위한 투두(To-Do) 메이트, 노션 등의 앱들과 함께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The-K 매거진' 활용법도 담았어요.

The-K 크리에이터 2기의 첫 활동 소감 & 한 줄 다짐

- 경험담을 통해 소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실감 나게 전달하겠습니다! - The-K 크리에이터 박정연 선생님
- 공감과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 The-K 크리에이터 한동신 선생님
- 교직원공제회의 풍성한 소식,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The-K 크리에이터 장원호 선생님
- The-K 크리에이터 2기로 선발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 The-K 크리에이터 안소연 선생님
- <더>불어 사는 삶, <케>제목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요! - The-K 크리에이터 이지원 선생님
- 공제회와 같이 뛰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The-K 크리에이터 이정환 선생님
-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The-K 크리에이터 김희원 선생님
- The-K 크리에이터 2기로 활동하게 되어 너무 설렘니다! - The-K 크리에이터 김광운 선생님
- 교육에 대한 다른 생각, 옳은 방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The-K 크리에이터 박동수 선생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퀴즈 이벤트 6월 2일 ~ 30일까지 응모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퀴즈 이벤트를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할급여금 관련 퀴즈에 응모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카페라떼 Tall)을 1인 1매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7월 13일이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상품으로 높은 급여율(연복리 2.99%(세전), 변동금리, 2018. 3. 1. 기준), 저율과세 등에서 혜택이 큰 금융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 급여금(원금+이자) 이내에서 퇴직 시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저축급여금을 더 많이 납입할수록 퇴직 시 더 많은 금액을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6월 말 퇴직 예정 회원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온라인 청구 이벤트 6월 3일 ~ 30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2년 6월 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시·도지부 회원 상담 창구에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발생되지 않으며,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혹은 퇴직생활급여를 신청하여 특별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온라인 청구 이벤트가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하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아메리카노 Tall)을 1인 2매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국내 서점 베스트셀러와 이달의 테마 도서를 선물합니다

'6월 북&JOY' 회원 5,500명에게 희망도서 배송, 6월 13일 ~ 26일까지 응모

매월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북&JOY 도서 증정 행사가 6월에도 찾아온다. ▲국내 대표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 ▲스테디셀러 10종 ▲매월 선정되는 테마 도서 10종으로 총 40종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 5,500명에게 희망도서 1인 1권을 증정하며, 당첨 발표일은 6월 30일이다. 당첨회원에게는 응모 시 입력한 주소로 7월 중 배송된다. 한편, 북&JOY 도서 증정 행사는 11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도서·음악 3개월 무제한 이용권 증정

The-K 온라인 이벤트

6월 20일 ~ 29일까지 응모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콘텐츠 이용이 정착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 회원만을 위한 The-K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제한 도서구독 또는 음악감상 이용권 중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6,000명의 회원(각 3,000명)에게 3개월 무제한 이용권을 증정한다. 응모 기간은 6월 20일부터 29일까지이며, 당첨 발표일은 7월 4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 만족을 넘어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행복 이벤트

6월 27일 ~ 7월 1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올해 6차 재인증을 앞두고 소비자중심경영 행복 이벤트를 마련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퀴즈 정답을 맞춘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아메리카노 Tall) 1인 2매를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7월 5일이고, 당첨회원에게는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참된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지난 5월 20일 여의도 본사 The-K타워에서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0일 공제회 여의도 본사 The-K 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최은숙 공주여자중학교 교사 외 각 부문별 9명의 수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천만 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 원이 각각 주어졌다.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수상하신 선생님들을 포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가르침의 참된 가치와 신념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존경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공제회 '한국교육대상'과 교육부의 ' 으뜸교사상'을 통합해 제정한 최고 권위의 스승상이다. ※ 자세한 수상 내역은 The-K 매거진 6월호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공적 소개' 및 각 인터뷰 기사 참고

공유 차량 대여, '쏘카' 제휴 공제회원 할인혜택 서비스 제공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교통 부문의 생활밀착형 제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단기간 여행, 출장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차량 대여 서비스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모바일 쏘카 어플리케이션 설치·회원가입·로그인 후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쏘카 제휴 혜택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송되는 초대카톡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기존 쏘카 제휴 혜택을 이용하던 계정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본 계정으로 변경된 제휴 혜택 이용가능). 일반회원이 대비 쏘카 대여료 주중 60%, 주말 40% 상시할인의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최초 가입 시 주말 50% 할인 쿠폰 3매, 퇴·출근 할인 쿠폰 10매 등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복지서비스>레저·스포츠·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권역별 시상식 개최



지난 5월 18일 The-K호텔경주에서 '2021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영남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가 '2021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해 지난 5월 18일부터 권역별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상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이하 S2B)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우수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S2B 이용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등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청, 지원청, 각급학교 세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 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 외 2개, 교육지원청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외 15개, 각급학교 부문은 대전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외 33개로, 총 53개 기관이 2021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S2B는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천만 원 이하 공사용역 계약과, 7천만 원 이하 물품 계약 시 활용하는 수의계약에 특화된 전자조달시스템이다.

The-K호텔서울

도심 속 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SUMMER 패키지



자연 친화적인 호텔로 사랑받는 The-K호텔서울에서 여름을 맞아 도심에서 시원한 호캉스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summer 패키지를 6월 한 달 동안 선보인다. 우선, **객실 조식 패키지**는 일반실 1박, 레스토랑 우첼로 모닝 뷔페 2인 식사 구성이며, **우첼로 디너 세미뷔페 패키지**는 일반실 1박, 60여 가지의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우첼로 디너 세미뷔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우첼로와 베이커리 카페 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 피트니스클럽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패키지 가격은 공제회 회원 할인가로 ▲객실 조식 패키지는 주중(일~목요일) 12만2천원, 주말(금~토요일) 13만5천원이며 ▲우첼로 세미 디너 뷔페 패키지는 주중(수~목요일, 일요일) 14만2천원, 주말(금~토

요일) 15만5천원이다.(단, 6월 3일부터 5일은 제외) 또한, 여유로운 휴가를 원하는 가족, 연인들을 위하여 넓은 정원 우첼로가든에서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우첼로가든 바비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셀프 바비큐이며, 양갈비 1kg 8만원, LA갈비 600g 8만원, 소고기 모듬·안심·등심·갈비살·부챗살 구이가 600g 기준 7만원, 돼지고기 모듬·삼겹살·목살·갈매기살 구이가 600g 기준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셜 메뉴로는 소시지·왕새우구이를 2만3천원에 즐길 수 있으며, 식사를 이용하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제공한다. 매주 목,금 18시~21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점심 12시~15시, 18시~21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모든 식사는 사전 예약제이며, 공제회 회원은 식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첼로 세미 뷔페 이용 회원이 바비큐 추가 이용 시에는 20% 특별 할인이 제공되며, 우첼로가든 바비큐 이용 회원이 세미 뷔페 추가 이용 시에도 동일 할인이 제공된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수 와인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우첼로 와인 장터**를 운영한다. 몰도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레드·화이트·스파클링 와인 등 50여 종의 와인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단, 테이크아웃 전용이며, 식음업장 내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The-K호텔서울에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summer 패키지에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눈앞에 다가온 여름, Early Summer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6월을 맞아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Early Summer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 구성은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이용권이며 이용금액은 요일에 따라 다르나 주중 10만6천원부터 이용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식당에서는 여름 특선메뉴 막국수, 삼계탕, 그리고 카페에서는 눈꽃빙수도 판매하고 있어 여행에서의 피로도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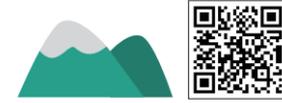
한편,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디너뷔페**도 이용 가능하며 이용금액은 성인 3만5천원, 어린이 2만원이다. 투숙객이 사전 예약할 경우 최대 20% 할인도 가능하다. 황룡원 뷰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지친 몸은 천연온천사우나에서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The-K경주호텔 사우나는 지하 630m에서湧출되는 100% 순수온천수이며, 천연나트륨, 염소, 유황성분이 함유된 수소가 온 농도 9.12pH의 천연 알칼리성 온천으로 피부 혈행향진, 류머티즘, 신경통, 창상요통, 피부병 및 외상 후유증, 피부미용 등에 효험이 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와 소나무 숲속에서 피톤치드가 풍부한 노천온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호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설악산가족호텔

하계 휴가철 객실 예약 선착순 진행



태백산맥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설악산의 절경이 어우러진 The-K설악산가족호텔에서는 **하계 휴가철 객실 예약**을 공제회 회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회원들을 위한 하계 성수기 예약 이용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16일 간)로 사전 예약은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The-K설악산가족호텔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033-639-8100)로 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제회 회원 대상 객실 이용요금 ▲20평형 전면 17만1천원, 후면 16만6천원 ▲29평형 전면 22만3천원, 후면 21만8천원, ▲47평형 일반 객실 28만원, 고급 객실 30만원이다. 상기 이용요금 중 20평형과 29평형은 2인 조식이 포함된 금액이다. 조식은 25종으로 구성된 모닝 뷔페 또는 한식메뉴로 제공되며, 정상 판매가격은 1인 1만3천원으로 인원 추가 시에는 모닝 뷔페 정상가의 10% 할인이 제공된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호텔 전반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여행 및 휴가를 즐기는 데 손색이 없다. 또한, 가족 단위로 단체 관광객이 여가를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야외 바비큐장과 사우나, 편의점, 휴게공간, 키즈존이 구비되어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산악체험 등 다양한 테마 코스와 편안한 객실,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는 The-K설악산가족호텔에서 가족과 함께 진정한 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033-639-8100(The-K설악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

6월 추천 여행지 이벤트, 수국이 활짝!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천상의 화원, 구례 수목원은 전라남도 제1호 국립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6월의 추천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중 매년 6월중~7월초까지 누구나 아름다움에 눈길을 멈추게 하는 각양각색의 10만 송이 수국이 핀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 회원에 대해 **6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례 수목원 입구 앞에서 찍은 사진 1장, 수국을 배경으로 한 사진 1장, 총 2장을 당 호텔 공식 이메일 주소(jirisan8100@naver.com)로 보내면 구례에서만 특별하게 맛볼 수 있는 새콤달콤한 산수유차 2잔을 제공한다. 또한, 호텔 이용 회원에 한해 구례 수목원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본 혜택은 당 호텔에서 발행한 예약문자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6월이 지나가기 전 구례수목원에서 웅기종기 모여 핀 화사한 수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의 온천사우나가 리모델링을 모두 마쳐 6월 19일 문을 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의 이색 포토존을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인증 사진 이벤트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지난 5월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의 이색 포토존을 선보이고 있다. 어디론가 바쁘게 뛰어가는 토끼를 쫓아가다 보니, 우연히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 도착한 앨리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호텔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두 가지 스타일의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스케치 아트웍으로 입체적인 그림 착시효과를 불러오게 하여 동화책 속 '앨리스 방' 공간을 연출, 표현하였다. 두 번째 포토존은 로비 안쪽의 숨겨져 있는 공간을 활용해 '숲속의 앨리스 정원'을 표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포토존을 배경으로 **인스타그램 인증 사진 업로드 이벤트**를 진행하여 수제비누, 와인부터 뷔페 식사권과 숙박권까지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고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로비에 위치한 앨리스 포토존은 가족들과 제주로 여행을 온 공제회 회원들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와 호텔 소식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ramadaplazaje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호를 읽고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매월 'The-K 매거진' 앞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도착합니다. 매거진을 아끼는 회원님들의 마음이 소중해 늘 꼼꼼히 읽어려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4월에는 총 722분의 회원님께서 정성스럽게 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교직 생활에 포근한 힐링이 된다는 회원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진심과 사랑, 관심과 소통임을 깨닫게 해주는 매거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회원님을 비롯해 동료 선생님들과 제자, 친구, 가족들과 'The-K 매거진'을 공유하며 소통하신다는 의견이 늘어갈수록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은 커지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품격 있는 'The-K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와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소개된 30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이마트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일을 기다리는 '매거진'이 되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상담으로 바빠 이제야 매거진을 읽고 있네요. 빠르게 소식을 실어 나르는 신문과는 다르게 항상 다양한 소식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주셔서 느끼지만 정성이 담긴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코로나로 사람 냄새가 사라져 가는 교직 생활에 따뜻한 봄비처럼 포근한 힐링이 되어주는 'The-K 매거진'에 감사드리고, 함께 매거진을 즐기시는 모든 회원님이 올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경 회원 공진초등학교

'The-K 매거진'으로 학교 외의 다양한 직업, 세상을 만나는 간접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직·간접 체험으로 교사가 견문을 넓히고 학생들의 세상을 넓히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The-K 매거진'이 그러한 역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님 글을 읽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소개할 것이 하나 더 늘어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진로 교육과 과학 식물 관련 단원 등에서 식물도감을 활용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연관 지어서 수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름 회원 인천주안북초등학교

매달 'The-K 매거진'의 '여는 글'과 함께 시작합니다. 4월은 대부분 식물일만 알고 있는데 미리 읽어본 덕에 '종이의 날', '지구의 날'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머무른 지식이 아닌 지구 사랑의 실천을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날에는 깊이 넣어 두었던 초를 꺼내 저녁 10분 동안 소독하고, 가족이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는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매달 22일은 이렇게 촛불을 켜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자고 첫째가 의견을 내자 어린 둘째와 셋째도 손뼉 치며 좋아했어요. 사람 향기 가득한 이야기 읽으며 마음 따뜻해지고, 교직원이 필요한 정보도 알게 되니 더 나은 오늘을 지내게 됩니다. 애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김*정 회원 경북대학교

'The-K 매거진'은 앱으로 접근하기도 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일이나 정보가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편하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의료·여행·투자·교육·건강·음식·역사 등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했다고 할 정도로 정보가 많아서 좋습니다. 정보도 허투루 쓴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소개하니 흥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받거나 이를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다양하고 좋은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구독하겠습니다.

강*우 회원 여산고등학교

섬진강, 구례 사진을 보며 힐링했습니다. 올해 벚꽃 구경을 못 했는데 화면으로 너무 아름다운 섬진강과 구례를 보며 다음 해엔 부모님,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네요. 내년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다음 매거진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즐겁게 기다릴게요!

이*복 회원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경북에 살면서 울진 산불 때문에 많이 우울했는데 식물일 특집으로 'The-K 매거진'에 산림, 나무, 숲 가꾸기 내용이 많아 좋았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진규 박사님의 나무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며, 의미 있는 명상을 하게 되는 4월의 'The-K 매거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나*순 회원 문경여자고등학교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좋은 기사들로 엮어진 4월호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제회의 수익률과 자산 운영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자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써 주셔서 걱정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자산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회원 대전동산중학교

'고민 상담소'를 읽으며 슈드비 콤플렉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너무 큰 압박과 책임감이 일상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현실에서 좀 더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크게 느꼈어요.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 소개된 구례는 제가 너무나도 자주 가는 지역이라 더 즐겁게 읽어볼 수 있었어요. 사진과 음식, 숙박까지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The-K Focus'의 2021년 만족도 조사도 재밌게 읽어봤는데, 즉석당첨 이벤트가 가장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소개해 주셔서 읽는 즐거움까지 느끼며 4월호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견 잘 수렴해 주시고 많은 이벤트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파이팅입니다!!

김*우 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육 현안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도 언급하며 환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주는 'The-K 매거진' 응원합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에서 재미있고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는 점이 너무 좋아요! 이번 4월호에서도 따스한 신혜우 박사님 글과 영상 참 인상 깊게 보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안*민 회원 단원고등학교

2022년 3월, 18년을 근무했던 정든 학교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어떻게 3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4월이 되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처럼 기다렸던 'The-K 매거진' 한 귀퉁이에서 현명한 첫인상 활용법이라는 '마음심'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나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기사를 읽는 내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첫인상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만남 이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해봅니다. 늘 도전을 주는 'The-K 매거진' 감사드립니다.

이*희 회원 복현중학교

다양성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4월호를 읽으며 깊이 깨닫게 되었다. 소통의 긍정적인 방법과 내가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 등을 조화롭고 지혜롭게 다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스승 수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며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참다운 스승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통인 것이다.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진심과 사랑, 관심, 소통임을 깨닫게 해 준 매거진이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윤*식 회원 인천석남서초등학교

이번 'The-K 매거진'에서는 야학교사와 통역 봉사로 일하는 광기곤 회원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봉사라고 하면 저는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동안 잘 실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기곤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봉사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희생이 아닌 행복이고, 남을 위한 일이 나에게 덕으로 돌아온다는 광기곤 회원님의 말처럼 앞으로 저도 봉사를 가깝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늘 좋은 사람, 늘 좋은 이야기 실어주는 'The-K 매거진' 덕분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주 회원 어월초등학교



첫인상 관련 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독 올해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첫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참 단순하면서도 뭔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등교할 때 노래도 틀어보고, 좀 더 밝은 분위기로 게시판을 꾸며봤는데 오늘은 반응이 괜찮네요.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류*연 회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신학기라 저도 아이들도 적응하는 데 정신이 없어서 봄이 이미 성큼 다가왔는데 봄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기운이 쏙 빠져서 자리에 앉았는데 매거진에 나온 구례 꽃비 사진을 보는 순간 '와 봄이구나. 정말 예쁘다!' 힐링이 되었습니다. 식물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과 리사이클링 기사를 보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사 속의 선생님들처럼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재미와 환경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매번 배우고 싶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들 소개해 주고, 유용한 생활정보, 해 보고 싶은 활동, 유익한 복지제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달마다 주제를 정해 관련 정보들을 알려주다 보니 매달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항상 잘 구독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유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정보들 알려주시기 바라요. 항상 감사합니다!

박*영 회원 서울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는 글 '지속가능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위하여'부터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까지 두루두루 알찬 구성으로 만나 본 4월호였습니다. 여는 글 한쪽 면을 수놓은 초록의 나무와 잎들, 사이사이 드러난 푸른 하늘은 싱그러운 봄날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배움 더하기 오늘의 학교 김정진 교수의 '밥상머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진짜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을 만나는 저에게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기사에서 안내된 대로 '지혜 토크'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15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질문 중 학생들에게 활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속담을 활용한 질문들을 던지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활동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 묻고 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과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시나브로 자라날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배움을 더해준 'The-K 매거진' 4월호, 곁에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고 싶습니다.

서*민 회원 광화초등학교

요즘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경준 선생님의 '청소년 환경 교육'에 관한 기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위한 밑거름인 것 같아요. 「The-K 매거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떤 걸 해야지' 마음먹을 때 나침반이 되어 주는 기사가 실려 좋아요. 이번 달에도 주옥같은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The-K 매거진」을 읽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영 회원 문수초등학교

「The-K 매거진」 4월호에서는 2021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해 주신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The-K 매거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독 경로, 콘텐츠 선호도, 부문별 만족도, 이벤트 및 소통 능력' 카테고리 나누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매거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The-K 매거진」 팀의 이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만족도가 점점 더 높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기 회원 은어울초등학교

「The-K 매거진」이 더욱더 품격 있는 잡지로 거듭나고 있어 매달 기대가 됩니다. 다른 여느 잡지와 달리 공감대가 있는 기사와 현장과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도 쏠쏠하여 매번 기대감 넘칩니다. 교육과 여행, 은퇴 후의 삶과 관련한 기사를 매달 빼지 않고 넣어 주시는 센스에 기쁨 넘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직원에게 더욱 사랑받는 매거진이 되길 빌어봅니다. 이벤트도 이번에는 몇 개나 참여했습니다. 큰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 회원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저는 「The-K 매거진」에서 '여는 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4월호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잘 요약돼 있어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또 매달 당첨을 기원하며 「The-K 매거진」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소소한 재미도 있고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매거진으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이*영 회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녕하세요? 「The-K 매거진」 애독자입니다. 이번 4월호는 이전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가 많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보았습니다. 특히, '방방곡곡 숨은 명소로 소개된 '꽃비 내리는 구례'는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또, 「The-K Focus」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2021년 결산내역을 보았는데, "회원 87만 명, 자산 53조 원에 투자 수익률 11.3%, 준비금 적립률 110.5%"라는 엄청난 성과를 창출하신 모든 공제회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제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룡 회원 국제대학교

20년유지회원 감사기념품 제도를 만들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재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재가입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념품이 없어 아쉽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신뢰가 갑니다. 더욱더 번창하는 교직원공제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회원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 회원 대구고등학교

이번 4월호의 주제를 통해 '중이 안 쓰는 날'과 '식목일' 그리고 '지구의 날'이 있는 4월답게 우리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몇 주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따뜻하고, 봄꽃들로 아름다워지는 풍경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지금 누리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몇 세대가 흐른 뒤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세대인 현신규 박사님, 현 세대인 신경준 선생님을 비롯해 이 글을 읽고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회원분들이 노력해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선명히 들었습니다. 또, 폐가족을 이용한 리사이클링과 같이 제 주변에서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혜 회원 인천대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매거진」과 함께 유익한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따뜻해진 날씨에 나른해 있으면 '춘곤증'에 관해 읽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함께합니다. 식목일에 관한 이야기와 현신규 선생님 이야기도 전해 주고, 과거 예방접종 사진도 보여주면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수업 시간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가끔 새로운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색해하는 아이들에게는 초도효과 이야기를 해 주며 좋은 첫인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네요. 수업의 활기를 주는 「The-K 매거진」 제 알찬 수업의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김*아 회원 서울정덕초등학교

튼튼하고 안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종합복지급여 특집 편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을 다시 조정하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기본에 충실한 교육가족을 위한 안정성 높은 보험 자산 운용이니 믿고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우 회원 미원초등학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세심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해 우울 안 개구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The-K 매거진」을 알고 난 뒤 웹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주셔서 항상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이벤트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복지도 매우 만족합니다!

황*아 회원 순천대학교 서울병원

회원 수 87만, 자산 53조, 투자 수익률 11.3%라는 교직원공제회의 지난 2021년도 운영성과를 매거진을 통해서 접했다. 공제회 회원으로서 든든함을 느꼈고, 앞으로의 무궁한 번창을 기대해 본다. 나는 특별회원으로,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를 분할급여로 변경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다.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매월 「The-K 매거진」까지 받아볼 수 있어 정말 좋다. 퇴직 후 「The-K 매거진」을 보며 교육계 소식 및 변화하는 공제회 소식을 소외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서 좋다. 이벤트의 깜짝 당첨으로 행복을 얻었으며, 여행 팁에 음식 및 건강 정보, 인생 2막 등 볼거리가 다양해서 읽고 또 읽는다. 「The-K 매거진」 책자를 차곡차곡 모아 놓고 계절에 맞는 음식 레시피를 이용해서 입맛이 없을 때, 여행 정보를 얻고 싶을 때 「The-K 매거진」을 본다. 특별회원으로 누리는 행복감에 편집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

양*순 회원 前 광주효광중학교

'좋은 사람 좋은 생각'과 'DIY 리사이클링'의 추천 영상 2편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생물 교사인데, 식물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지루해지면 그림을 그린다는 신혜우 박사님의 말이 와닿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식물 화가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업 중 많이 알려겠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처럼 교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또 가족 재활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은 쓰다 보면 항상 일부분이 남아서 새로 사게 되는데, 낡은 부분 이외의 부분은 재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 관심 분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신*원 회원 경북대부설고등학교

다양한 분야의 기사로 풍성함을 선물하는 「The-K 매거진」 언제나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문자로 매번 기사별 웹진 링크도 전해주시니 한결 더 찾아 읽게 됩니다. 매달 특집호가 있어 더 기대됩니다.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에서 전근와서도 매달 매거진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나누며 서로를 응원합니다.

박*미 회원 부산동양초등학교

8년 전 퇴임하신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제가 계속 걸릴다가 「The-K 매거진」이 공통 분모가 되어 이야기가 계속 유쾌하게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분 또는 그분들과 나, 또는 우리가 비록 현직과 전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를 연결시켜 주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를 흐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퇴직을 해도 「The-K 매거진」이 계속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리라 믿으며 응원을 보냅니다.

박*희 회원 환일고등학교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The-K 매거진」이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월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조언과 진심이 담긴 의견을 바탕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한결같이 지켜봐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매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50분을 선정해 이마트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The-K 매거진' 회원님들을 위한 온라인 선물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떠 있는 The-K 로고



속 숨은 글자를 조합해 주세요!

1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5개의 The-K 로고 배너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5가지 글자를 조합해 만든 하나의 단어를 '숨은 글자 맞추기' 배너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SPC 해피통합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6. 1. ~ 6. 30.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로고를 찾아 클릭 ▶ 숨겨진 5글자 찾기 ▶ 단어를 조합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8. 1. 이후



2

'GOGOGO 이벤트'

영상보 GO) 댓글달 GO) 선물받 GO)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SPC 해피통합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6. 1. ~ 6. 15.
- 응모 방법 : ①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② 「The-K 매거진」 6월호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인터뷰 영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달신 후
③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8. 1. 이후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인터뷰」



「DIY 리사이클링」



* GOGOGO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고 교감하는 스승과 제자,
오늘도 글을 통해 사람을 배웁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
공주여자중학교 최은숙 교사



자라나는 것에는 저마다의 파종 시기가 있다. 글에도 파종 시기가 있다면, 최은숙 교사는 중학생일 때가 적기일 거라고 믿는다. 글밭을 돌보는 농사꾼.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 최은숙 교사 덕분에 학생들은 시처럼 사랑하고 소설처럼 성장하며 동화처럼 꿈꾼다.

'The-K 매거진, 6월 즉석 당첨 이벤트'

여름맛이 JUNE비해요

The-K가 시원하게 쏘는 선물 받고, 상쾌한 6월 보내세요~



600개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천원권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600개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년 6월 1일 ~ 6월 30일
- 응모 방법 :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 당첨 발표 :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 경품 발송 : 2022. 8.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 발송
 - 부정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6월호 초성 QUIZ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4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초성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2. 6. 1. ~ 6. 30.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8. 1. 이후

5월호 퀴즈 정답

- QUIZ 1. 김란사
- QUIZ 2. 빅블러
- QUIZ 3. 휴스테이



매월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유관순 열사와 함께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서를 알기 쉬운 한글로 초안을 잡았으며, 해방 후 국어와 한문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독립 운동 정신을 가르쳤던 독립투사이자, 교육자는 누구일까요?
㉠ ㉡ ㉢ ㉣ 선생 (P.8~11 - 「역사 속 숨은 영웅」 참고)
- 2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여 매년 유아·특수·초등·중등·대학교육 부문에서 모두 10명을 선발해 수상하는 이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P.14~15 - 「스승상 수상자 공적 소개」 참고)
- 3 지난 2020년 출범해 올해 2기를 맞았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각종 제도, 문화행사 및 복지서비스, 교육·업무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고 알리는 교육 가족들은 누구일까요?
The-K ㉠ ㉡ ㉢ ㉣ (P.72~73 - 「The-K Focus」 참고)